

# 造景士

Spring 2016 No.100



(사) 한국조경사회  
Kore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   |    |
|---|----|
| <b>01 100호 발간 기념 인사말</b>                  | 03 |
| - 황용득 본회 회장                               |    |
| - 송유경 부산시회 회장                             |    |
| - 이상철 울산시회 회장                             |    |
| - 김은숙 대구경북시도회 회장                          |    |
| <b>02 100호 발간 기념 축하글</b>                  | 05 |
| - 역대 회장단                                  |    |
| - 각계 단체회장단                                |    |
| <b>03 특집 : 100번째 만남</b>                   | 13 |
| - 조경사회보 100호를 돌아보며 / 최종필 (사)한국조경사회 감사     |    |
| - 조경인이 바라본 조경사회보                          |    |
| <b>04 고정코너</b>                            | 24 |
| - 사진 한 장에 담긴 정원이야기/김인수 (사)한국조경사회 정원문화연구소장 |    |
| - 우리 시대의 생태시 읽기/진승범 (사)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       |    |
| - 조경관련 법규Q&A/김철홍 (사)한국조경사회 법제위원장          |    |
| <b>05 본회소식</b>                            | 28 |
| - 제36회 정기총회(이사회)                          |    |
| - 제13회 조경의 날                              |    |
| - 제213회 사목회                               |    |
| <b>06 지회소식</b>                            | 30 |
| - 부산시회                                    |    |
| - 울산시회                                    |    |
| - 대구경북시도회                                 |    |
| <b>07 공지사항 및 회원동정</b>                     | 32 |
| - 공지사항                                    |    |
| - 회원동정                                    |    |
| - 회비 내역 및 협찬 현황                           |    |
| <b>08 편집후기</b>                            | 35 |
| <b>09 기업회원사</b>                           | 40 |

## 100호 발간 기념 인사말



황용득 / 본회 회장

조경사회 회원 여러분!

드디어 (사)한국조경사회의 100호 회보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감개무량합니다.

사실 40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서 100호에 이르는 회보 발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회는 조경계를 대표하는 '인'의 단체로서 실질적으로 조경의 모든 현안에 대처하고 조경인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본회의 운영을 맡고 있는 역대 집행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의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바랍니다.

사실, 본회는 봉사와 헌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호가 발간되는 오랜 기간동안 발간을 위해서는 후원해주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셨고 이를 발간하기 위해 많은 본회 집행부 여러분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결과가 오늘 100호 발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심양면 후원을 해주신 모든 기업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깊은 애정으

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인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조경분야가 처해진 내외 여건은 그리 따뜻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시도도 활발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새 본회 회보가 100호를 맞이했듯이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조경의 역사는 지속되어 가야 합니다.

앞으로 200호의 회보가 발간될 때에는 과거 어려웠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뚝 선 조경의 미래가 담기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올해는 조경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가 그 결실을 맺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해입니다.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본회가 열심히 앞장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경인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사)한국조경사회의 100호 회보 발간을 축하하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유경 / 부산시회 회장

봄이 만연한 하늘아래 같은 조경사회라는 같은 그늘 아래에서 조경사회보 100호 발간을 맞이하게 되어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기쁘고 또 축하드립니다.

조경사회보는 지난 35년간의 조경인들의 모습과 기록의 나이트를 쌓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어느덧 신록이 우거진 하나의 훌륭한 나무로 자라난 조경사회보의 그늘 아래에서 더 많은 정보의 교류와 소통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조경사회 가족들이 100호를 발간하기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어려운 여건과 세월이 그리 녹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부 한부의 꾸준한 기록의 발자취는 앞으로의 시대를 여

는 창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춰 부산시회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제 3회 조경박람회를 6월 23일에서부터 26일까지 벅스코에서 실시하게 되며, 매년 시행하는 희망놀이터사업, 한일 교류 체육대회, 국가공원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부산의 모든 조경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회에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다시 한 번 100호 발간을 맞아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 100호, 200호 조경인들의 눈과 귀가 되는 사회보가 되길 기원합니다. 🍀



이상철 / 울산사회 회장

(사)한국조경사회 회보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소식지 '조경사'가 지금까지 알찬 내용으로 심 없이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은 본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특히나 편집위원님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조경공사 물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업계를 위해 많은 대안제시와 활로를 안내하고, 조경진흥법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등 주요관련 법안에 대한 각 분과위원회의 열정적인 활동을 보면서, 조경

인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본회 및 각 사회소식을 상세히 전하고 '천원의 기적' 연탄나눔 릴레이 행사 등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에도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경인을 위해 풍성한 내용으로 깨어있고 열려있는 소식지로서 소통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원고를 집필하고 편집하시는 모든 분들께 울산사회 전 회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



김은숙 / 대구경북시도회 회장

한국조경사회 회보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0호 발간과 관련해 한국조경사회가 걸어 온 발자취를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80년 6월 21일 한국조경사회가 태동한 이래 벌써 35년이 지났으니 한국조경사회는 현대 한국조경의 역사와 함께 오랜 시간 한국의 조경을 발전시키는 초석이 됨은 물론 조경인의 의사와 권익을 대변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전문가들과의 세미나 개최, 전문 서적 발간, 법규의 제정과 개정, 선진 사례 답사, 학생 및 실무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35년간 노력한 흔적들이 현재 우리가 나아가는 조경의 모습이며 그러한 기록들이 발간 100회를 맞는 회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경인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역사적 소임을 한국조경사회에서 잘 추진하고 있어 대구경북시도회 전체 회원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창립 2년을 맞은 대구경북시도회는 아직 초기 단계라 회보를 발간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풍성한 지회 소식이 실릴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할 계획이며 부산사회, 울산사회와 유대하여 전체 조경인들의 발전을 위한 모든 일에 회원들의 뜻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경사회보 100호 발간을 거듭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조경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100호 발간 기념 축하글



김윤제 / 고문 제6대 회장  
(1991.03-1993.03)

1981년 2월 창간호가 탄생된 후 회보를 발간해야 된다는 부담에 쫓기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100호를 펴내는데 서른다섯 해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격려의 박수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풍성하고 좋은 음식을 마주하게 되면 옛 시절 춥고 배고팠던 때를 회상하게 된다. 지금 맛있는 조경사회보 제100호를 마주하니 그 때 불품없는 회보를 발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람인지라 지난날 일들이 생각난다.

재정상태가 무척 열악하였던 시절 발간상황은 어떠했을까? 단편적인 예로 회보 제25호(1991.6)를 보면 A4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면이 4면으로 구성, 1면에 회장/임원들의 컬럼, 2쪽에 소식, 3쪽에 정보, 4쪽에 회원동정과 찬조회사 광고를 게재하였다.

다음호 발행의 스폰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회보 발행/발송비용은 회장단이 소속된 회사가 솔선하여 광고를 내고 광고비 명목으로 낸 금액으로 충당하였다. 별도 발송봉투도 없이 회보면을 3등분하여 병풍처럼 접어 전면에 '造景士' 회보표지가 오고 후면에 발신사무국 주소와 수신자 주소를 붙이고 스테이플러로 한번 꺾어서 발송하였다. 인력도 부족하여 원고 편집도 편집위원회가 주관이 되지만 대체로 광고

를 내는 회사에서 도와주었다. 형편이 좋아지면서 회보내용도 많이 향상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제100호 이후 조경사회보에 제안한다면 대화와 소통거리를 많이 담은 '조경가족소식지'로 점차 바뀌었으면 한다.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저절로 화합이 되고 단결하게 되고 협력하는 동반자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좋은 메뉴로 음식상을 잘 차려 놓아도 음식을 먹는 사람이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면 애쓴 보람도 있어 서로가 좋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조경사회보의 메뉴 선택도 그리 쉽지 않은 것 같다. 조경가족들의 소박한 일상의 삶을 담은 소식, 시간은 지났지만 뒤늦게라도 알면 좋은 것, '아! 그랬었구나!', 잔잔한 감동이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정겨운 미담, 부담 없이 읽혀지는 숨은 에피소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와 건강상식 등을 메뉴로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시간이 지났어도 두고 볼만한 내용이 있는 지혜주머니, 궁금해서 다음호가 기다려지는 생수 같은 조경가족소식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원고와 기사의 집필도 본회, 지회할 것 없이 전국지역을 순회하며 조경사회 식구가 집필자로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다.

(사)한국조경사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권요준 / 고문 제7대 회장  
(1993.03-1995.03)

우선 조경사 회보 100호 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돌이켜보면 '본회'가 창설된 해가 1980년 이었고, 그 이듬해인 1981년 2월에 '조경사 회보'지 창간호를 발행 하였으니 햇수로는 회보 발간 35년이 되었습니다.

필자도 제 7대 '조경사회'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 간의 회보 발간에 대한 노고와 우여곡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초기 '조경사회보'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정보교류, 기술소개, 회원동정 등 소식지 역할을 하면서 팜플렛 4~8쪽 형식으로 조그마하게 발간했습니다.

그러나 '조경사회보' 발행은 초창기 '사회' 활동이 미미할 때

조직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조직의 대표성과 정체성에 대한 명맥유지를 위하여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물론 소수 회원의 회비로 운영하다보니 재정 지원이 여의치 않아 폐·복간이 거듭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금번 회보 100호 째를 맞이 하게 되니 감개무량 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조경단체 중 '학회'를 제외하고는 수십 년간 정기적으로 회보 지를 발행한 조직은 '조경사회' 뿐으로서 그 저력에 대해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조경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다시 한 번 '조경사회보' 100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간단하게 인사드립니다. 🍀



김기성 / 고문 제10대 회장  
(1999.03-2001.03)

조경사회보 1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처음에는 한쪽 분량의 흑백으로 발행 되다가 차츰 쪽수도 늘고 내용도 많아져 현재는 조경계 명실상부한 간행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음에 조경인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정(安定)과 평화(平和)는 열매가 먼저 아니고 씨가 먼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경사회보가 100호를 맞이하는 것은 1981년에 먼저 씨를 잘 뿌려 놓았고 잘 가꾸어 왔기에 오늘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간 100호를 가꾸는 세월 동안 우리업계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의 반복 속에서 우리에게 소식과 정보를 전해주고 우리를 대변하는 입과 귀와 눈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조경업이 발전적으로 진보하고, 88올림픽으로 특수가 생기고, 1992년 IFLA 대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즐거움과 기쁨도 있었고, 그 반면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타 분야에서 호시탐탐 우리업을 잠식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도전함에 분노를 쏟아 내었고, 힘이 부족하여 도전에 방어를 할 수 없을 때 슬프게 하는 등 영속의 시간 속에서 매체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왔습니다.

조경사회보는 현재까지 우리분야 내면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100호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걱정함은 내 생각의 어리석음 일 것이지만, 이제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타 분야와 공유 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내 것을 남에게 알리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건축, 토목, 환경, 임업분야 등을 참여케 하여 서로 융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린 장에서 경쟁하여 승리를 하여 우리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고, IT산업의 빠른 진전이 적용 되어야 앞으로 200호, 500호, 1000호가 영속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조경사회보 100호를 축하하며, 지속 발전하길 빌겠습니다. 🍀



강인철 / 고문 제11대 회장  
(2001.03-2003.03)

조경사회보의 1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80년 협회 창설 이후 36년만에 맞이한 정말 뜻 깊은 일이라 반가움과 기쁨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87년 본인이 사무국장을 맡아 처음 회보 발행에 참여한 것이 제 5호입니다. 그 이후 91년까지 4년간 사무국장을 연임하면서 24호까지 발행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여 인쇄비는 회원광고유치로 충당하고, 발송작업은 사무국 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시 한번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협회의 위상이나 재정, 자체 사무실 보유(그 당시는 회장 임기만료시마다 회장님 소속회사로 사무국을 옮기던 시절이었습니다) 등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변화와 발전을 통해 현재 100호 발행을 앞둔 조경사회보의 발행을 보게 되다니 그저 흐뭇한 마음 뿐입니다. 그 동안 면면히 회보 발간이 지속되도록 노력한 후배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회원들에게 큰 기쁨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1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



유길중 / 고문 제12대 회장  
(2003.03-2005.03)

먼저 (사)한국조경사회보 제 1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조경사회가 1980년 6월 21일에 한국일보사 13층에서 65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가지고, 민경현회장님께서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자리에 저도 참석하여, 그 광경이 아스라이 기억이 납니다. 벌써 37년이 지났군요.

첫 회보는 1981년 2월에 발간이 되었으니 조경사회의 역사와 함께 하여 회원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고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처럼 칼라도 아닌 흑백으로, 조금 작은 지면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제12대 회장으로 2003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전임 회장은 강인철회장이시고, 후임 회장은 이용훈 회장이었습니다. 내 임기 2년동안 한국 조경학회장은 임승빈교수님이셨고, 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장은 김활현회장이셨는데, 이 3개 회의 회장이 매월 한번씩 초찬모임을 갖고 조경계의 현안을 논의하고 시행일자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뒤에 이대성 위원장님과 정태건회장님도 참석하게되어 조경계의 주요 단체가 협조를 잘 해나간 것으로 기억됩니다.

2년동안 시행한 사업으로는, 조경인 체육대회, 한국 조경 산학대전, 한중 설계 교류전, 한 일 조경인 축구대회, 3개 단체가 공동개최한 조경기술세미나 및 조경인 송년의 밤, 단체 회원제 시행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한국 조경사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현 제18대 황용득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조경사회 회원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용 훈 / 고문 제13대 회장  
(2005.04-2007.04)

1981년 2월 창간호로부터 만 35년이 지난 2016년 4월에, 「조경사」회보 100호 발간에 따른 기념 축하 원고요청을 받고 보니 여러 가지 감회가 느껴집니다.

본인이 (사)한국조경사회 제13대회장으로 취임한 2005년 4월 1일 취임사의 공약 중 한가지가 그 전까지 재정형편상 부정기적으로 발행된 「조경사」회보를 - 1호(1981년 02월)부터 57호(2005년 03월)까지의 기간이 24년 소요됨 - 매년 4회씩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담할 회보분과위원회를(위원장 : 구영일 / 부위원장 : 허은, 우대준) 박승자 부회장 산하에 신설하여 임기 2년 동안 8회(58호~65호)를 발간하였으며, 이후 후임집행부에서도 계속 이어져 오다가



김경윤 / 고문 제15대 회장  
(2009.04-2011.04)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쇄 마감시간에 쫓겨 콘텐츠 구성이며 표지디자인을 급히 결정했던 일들이 생각나는데, 드디어 100호가 탄생하는군요. 본회 회보 제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원수가 적었던 발간 초기시절에 본회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임원님들의 소속회사마다 윤번제로 돌아가며 자비로 회보를 발행했던 회보가 이제에는 어엿한 칼라판 종합정보지로 자리매김했음에 자랑스롭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회장으로 재임 시 발행된 회보는 제74호부터 81호까지였는데, 당시 회보분과의 최원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수고해



이민우 / 고문 제16대 회장  
(2011.04-2013.04)

조경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름하기 위해 출발과 과정을 들여다 본다.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면서 어지럽다. 문득 최근에 구입한 「이어령의 지의 최전선」을 들춰보는데 흥미를 끄는 제목이 있다. 「컨테이너와 해병대」.

저자가 해병대 출신인가?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볼 수 있는 해병대 전우회 컨테이너에 대한 비난인가? 바로 책 중간으로 헤쳐 들어가면서 조경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뜻밖의 의미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역사상 큰 땅에서 하는 전쟁 능력과 바다에서 하는 전쟁 능력으로 패권이 결정되었다면 해병대는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며 보완해 주는 능력으로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트럭에도 배에도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는 땅과 바다의 차이를 없애주는 기발한 운송수단으로 해병대의 분신과 마찬가지로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 제안자인 트럭운전사는 '어느덧 100호를 맞이한다는 소식을 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100호를 맞이한다는 소식을 접하기 때문입니다.

조경사회보의 성과중 한 가지는 기업회원(단체회원) 홍보(소개)면을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회원사 유치로 인한 재정증진(연회비 30만원) 확대와 조경사회의 참여의식 고취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에 있으며, 회원수가 58호(2005년 5월 발간)에 25개사에서 99호(2015년 12월 발간)에 이르러서는 220여개사로 증가토록 기여한 부문입니다. 특히 현 18대 집행부(황용득 회장, 편집인-진승범·최윤석)에서는 회보의 구성과 내용 및 인쇄본의 질에 있어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웹진과 인쇄본을 기다리는 회원들에게는 무척 반갑고 유익한 소식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조경사회보를 통하여 조경인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한국조경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기원하면서 거듭 1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

주신 편집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리며, 제 임기 동안에는 본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와 같은 각종행사가 유독 많았던 시절이라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이소향 국장님의 노고가 많았던 점에 특히 감사드립니다.

회보는 지속적인 발간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회원들에게 본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여, 응집된 조직력으로 조경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간당시의 시대상과 시대정신이 기록돼 있는 회보의 축적은 먼 훗날 대한민국 현대조경사를 구축하기 위한 사료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희망사항이 있다면 ASLA에서 발행하는 'Landscape Architecture' 잡지와 같이 발간 주기를 단축시키고 내용면에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조경사회 화이팅! 🍀

20세기 후반 세계를 바꾼 15인의 하나란다.

어! 그럼 조경은 어떻게 해야 하지만 생각을 하는데 바로 '통섭'이란 단어가 나온다. '콘실리언스Consilience'는 콘con, (함께) + 실리언스silience, (뛰어오른다)로 서로 다른 시스템이 하나로 이어져 함께 발전하는 것이란다. 바로 해병대 같은 것, 컨테이너 같은 것이란다. 이와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해선, 언제나 반걸음이라도 앞서 가며, 남보다 한 치라도 더 깊이 땅을 파기 위해선 '관심'과 '관찰' 그리고 나와와 '관계'. 이 세 가지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사이를 결합하고, 인터페이스(사이)를 바꾸고, 결합점을 찾고, 접속점을 찾아내야 한다는데.... 이걸 조경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그런데 답이 나온다. 어릴 때 들었던 "사이좋게 놀아라"가 답이란다. '사이'란게 바로 '인터페이스'란다. 제2의 '사이'도 '사이'란 개념에서 탄생할 수도 있으리란 생각이 든다.

조경은 환경과 생태와 도시와 건축과 임업과 원예와 디자인과 그리고 발주자와 이용자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조경의 '사이'를 기다리며  
"사이좋게 놀자" 🍀



정주현 /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명예회장 제17대 회장  
(2013.04-2014.12)

우선 (사)한국조경사회의 100호 회보 발간을 진정 격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조경사회의 오래된 멤버로 자부하지만 사실 1980년에 설립된 사회에 거의 10여년 가까이 지나 참여한 셈이어서 약25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1/4세기 이상은 관여한 것 같네요.

참여한 지 얼마 안되었을 때 열정을 조금 인정받아서 윤성수고문님이 회장하실 때에 사무국장의 중책을 맡아서 모임의 체계를 잡기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몇 가지가 납니다.

하나는 제 이전의 사회 발행 회보를 전부 모아서 기록으로 보존하는 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상당 수의 회보는 사무국에서 갖고 있지 않아 제가 가지고 있던 것과 여기 저기 수소문(창간호외의 초기 회보 한 두개를 찾지 못해 오래 애먹음)하여 오래되고 낡은 지질과 조잡했던 인쇄의 사회 회보를 결

국은 다 찾아서 편집철로 만들어 다음 회장단의 사무국으로 넘긴 일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만 해도 회원들에게 모든 인쇄물이나 유인물은 직접 사무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던 때라 사무국을 맡은 동명기술공단 조경부 전 직원이 다 달라들어서 발송업무를 직접하기 위해 봉투에 라벨붙이고 주소써넣고 우표와 봉투 풀칠을 하기위해 야근을 해야 했고 나중에 회사 업무가 바쁠땐 학생들 불러 알바까지 시켰던 기억입니다. 직원들이 그래도 내색않고 해줬던 것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맙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조경사회의 집행부에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조경사회의 회보가 끊어질 듯하며 그 수명을 끈질기게 이어 오다가 드디어 지령 100호의 금자탑으로 나아오게 됨을 참으로 장하고 대견하며 그 과정에 참여한 편집위원회의 노고를 치하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17대 회장을 할때도 경기가 어려워 후반기엔 잠시 웹진 형태로 제작한 시기도 있었지만 18대 황용득 회장님이 다시 책자형태로 복원하여 지금 100호 발간의 경사를 맞이 할 수 있게 된 점은 정말 다행이고 재삼 축하해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150호, 200호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발간과 발전을 기원하며 사회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눕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



김성균 / (사)한국조경학회장

‘조경사회’ 제100호 발간을 조경학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축하드립니다.

한국조경사회는 우리나라 조경업의 시작과 더불어 창립된 이래 이제 반세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조경사회는 그동안 한국 조경실무의 주춧돌이 되어 국토를 아름답게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더 높여 조경분야가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조경사회의 소식지인 ‘조경사회보’가 1981년 창간되어 어느 듯 100호의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끈기 있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우리 조경계는 그동안 많은 조경인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국토환경의 굳건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며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대내외적으로 산적해 있는 현안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경계 구성원들이 상생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경인들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조경사회보가 이러한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국내 건설경기위축의 여파로 조경업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조경분야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침체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로 진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실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합니다. 또한 해외무역에서는 발 빠른 정보체계가 생명입니다. 이러한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조경학회에서는 조경계가 국제적으로 발을 넓히기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경사회보’도 이에 동참하여 해외의 정보를 전달하는 소식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조경사회보’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래도록 독자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소식지로 건승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



김재준 /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협회 회장

조경사회보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경사회보가 단순한 소식지로 출발을 하였고, 100호 발간을 맞이하는 오늘에 이르러 그동안 조경인들을 위한 정보의 장이자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사)한국조경사회를 이끌어 오신 집행부의 노고와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경사회보가 향후 조경계의 미래를 준비하고 예측하는 유익한 발간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조경건설산업은 조경공사 준공 후, 발생하는 수목의 고사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회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제정, 고시된 '조경식재공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발주관행으로부터 시공사들이 부담해왔던 불합리한 하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발주사·원도급자·하도급자가 기존의 경직된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로 변화할 수 있는 시발점으로 상생협력의 제도적 시스템이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경식재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자연재해 판정기준 등이 추가로 제정되어, 발주사·원도급자·하도급자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경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날 조경분야는 건축, 산림, 환경 등 인접분야의 수많은 도전으로 인해 자칫 조경이라는 용어가 사라져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가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조경분야에서 가장 취약하고 시급한 과제인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대변하고 보호해줄 정책이나 제도의 보호막이 없으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경사회보 100호' 발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사)한국조경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조경인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조정일 /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협회 회장

조경사회보 100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사)한국조경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81년 2월 소식지 성격으로 첫선을 보였던 조경사회보를 처음 접했던 순간이 아직 기억에서 생생한데 어느덧 100호째를 맞이하였다는 소식에 세월의 흐름과 함께 만감이 교차함을 느낍니다. 어느덧 35세를 맞이한 조경사회보는 처음엔 단순한 소식지 출발하였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시대를 살아온 조경인들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투영된 역사의 기록물이었고, 또한 시대별로 유통되었던 다양한 정보의 바다였고, 소통의 장으로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조경이 도입된 지 벌써 40여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불행하게도 국내 조경건설산업의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조경분야가 고성장기를 거치

는 동안 성장으로 인한 과실을 따먹는 데에만 급급하여 조경의 미래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일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접분야에서 조경영역을 침범하려는 각종 시도들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누구를 막론하고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라 진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는 조경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조경관련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경분야에 대한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경사회보는 어려운 상황에 빠진 조경인들이 희망과 비전을 갖고, 소통하고 화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매개체로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경사회보가 지난 3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숭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사)한국조경사회를 이끌어 오신 전, 현 회장님 이하 임원진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모두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사)한국조경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조경사회보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원합니다. 🍀



김요섭 / (사)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회장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회원 모두와 함께 조경사회보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사회에 '조경'이라는 용어가 낯선 시절, 대학에서 조경 교육을 받은 새내기 졸업생이 조경업계에 발을 내딛기 시작한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한국조경사회를 창립하고, 조경사회보까지 발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초창기 선배님들의 조경에 대한 열정과 결연함을 정말 마음속 깊이 느낍니다.

지난 35년간 한국조경사회는 설계, 시공, 감리, 자재 등 우리나라 조경전문가와 산업의 중심에서 회원의 교류와 협력, 업계발전의 구심체가 되어 왔으며, 대외적으로 조경의 위상을 높이고, 관련 제도와 규정을 제·개정하는데 건인 역할을 해주

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기 조경은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고, 질 높은 다양한 옥외공간을 조성하여 국민의 여가 복지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도시개발이 종료되고 있는 지금 조경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조경사회가 새로운 시대의 조경의 미래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주고, 대정부 창구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업계를 이끌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경사회보에 새로운 조경이나 기술소개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각종 조경 관련 사업 법규정(법, 기준, 지침)등의 실무해설은 법규정에 취약한 현업의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연재를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조경사회보 100회 발간을 축하드리며, 한국조경사회 황용득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이승제 /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

조경사회보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회보를 발간하여 조경인들의 정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신 한국조경사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경이 지나온 40

여년 속에서 35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한 회도 거르지 않고 조경사회보가 발간됨으로써 조경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조경사회만의 회보가 아닌 조경계를 대표하여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전달하고, 환경·조경계의 발전에 중심역할을 하는 고품격 정보로 발전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경사회보 제100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모든 환경·조경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경사회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송승용 / (사)한국조경수협회 회장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 첫 일출을 본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봄기운이 물씬 풍겨나는 3월입니다. 대자연 속에서 잠들었던 생명들이 긴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펴고 있는 시점에서 (사)한국조경사회의 조경사회보 제100호 발간 소식은 더욱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조경사회보는 실제 조경을 주 업무로 하는 실무진과 조경학과 교수님들이 실사례의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가지고 대화하는 소통의 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같은 조

경의 길을 걷고 있는 조경인의 한사람으로서 조경사회보 속 대화의 장에서 새로운 의견들을 접하게 되고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경은 수많은 조경재료들이 있고 그 분야도 넓어 좀처럼 쉽게 하나로 모이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과 반목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크기에 미치지 못하고 더디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경의 제목소리를 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정에 조경사회보의 제100호 발간은 조경인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의 신호탄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 신호탄이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수많은 조경인들을 더 발전된 조경의 길로 안내하는 촉포가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을 전하고 지금의 열정이 식지않고 계속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



이창환 / (사)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

조경사회보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경사회는 한국조경기술자들의 모임인 한국조경사회의 정기적 회보로 그동안 우리 조경인들의 희노애락의 현장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조경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조경기술자들의 이야기를 100회 이상 담고 있어 그 역사성 가치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 우리 조경은 작은 시작이었으나 이제는 50여 대학에서 매년 5,000여명의 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12만명의 조경인은 현장에서 국토 녹화산업과 환경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발전의 꼭 필요한 직업이 되었습니다.

70~80년대 피폐한 녹지와 환경산업은 우리 조경인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많은 녹지면적과 녹지의 가치를 확대 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산업 위축과 국가경제 그리고 주변 관련분야의 법제적 도전 등으로 조경의 발주량이 줄고 위축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경은 아름다운 국토의 보존 및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며 업종이라 생각합니다. 전통조경, 환경생태, 일반조경, 유사 녹지산업 등 정원과 공원 등 녹지분야의 종합예술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우리 조경인의 정체성을 살린 영역의 확대를 통하여 더 많은 창조적인 일거리가 확대되리라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들의 단합된 노력이 있다면 환경 문화, 산림, 생태, 생명 분야의 새로운 우리의 일자리는 더욱 증가하리라 확신합니다. 더욱더 조경기술인의 모임인 조경사회 회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업계와 학회를 잇는 조경기술인들의 분발이 기대됩니다. 한국전통조경학회도 정원문화 및 명승 등의 깊이 있는 연구와 가치를 극대화하고 삼천리금수강산이 될 수 있도록 조경사회 회원님들과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조경사회보의 100호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조경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날이 발전하는 조경사회보가 되기를 성원합니다.

다시한번 조경사회보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노영일 /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

대한민국 그린네트를 창조하는 조경사회의 조경사회보 100호 발행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80년 창립 이래 한국조경사회는 우리나라 조경산업 발전과 조경문화 창달을 위한 많은 노력과 함께 조경인들의 권익보호를 대변하고, 선구자로서 조경산업계를 이끄는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한데에는 모든 조경사회원님의 뜨거운 성원과 정성과 열정이었기에 함께 어우러진 결과 인 것 같습니다.

조경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새로운 정보 및 기술 제공과 더불어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경산업 업계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조경사회보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객관적이고 신속한 정보의 제공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조경산업을 위한 초석을 쌓는 조경사회보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소통과 발전의 디딤돌’로서 조경인의 저력을 모으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의 구심적 역할을 하리라 확신합니다.

조경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소중한 역할을 계속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한국조경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더불어 조경가족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구본학 /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장

1981년 신유년 2월, 창간호를 발간하면서 세상에 그 탄생을 알린지 했수로는 36년의 세월을 지내 온 [조경사회보]가 이제 지령 100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00호라는 것은 단지 100번의 회보를 발간하였다는 숫자 그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1980년 6월 창립하여 아름다운 30대 중반으로 성장한 조경사회와 지령100호의 조경사회보를 축하드리며, 조경사회 구성원이기도 한 제가 축하 인사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회보 창간호에 소개된 발기인 및 회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조경분야의 태동기와 발전기의 기틀을 잡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신 원로로서 지금도 조경의 발전과 미래지향적 전환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분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조경기술사 11명, 기사(1급) 306명, 산업기사(기사2급) 792명이던 조경분야 기술자격자 중 65명이 참여한 창립총회(1980.6.21. 14:00. 한국일보사 13층 홍실)에서 조경사회가 태동하여 숭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경의 자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조경은 정체성 정립과 확대, 창의적 학문과 창조적 기술을 통한 내실과 외연 확장 등에 충실해왔다면, 이제 조경분야는 때로는 힘든 경쟁을 하면서 때로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통해 미래 한국의 건설, 환경의 흐름을 이끌어 나갈 막대한 책임을 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간호에 게재된 조경사회 창립 발기문에서 밝힌 키워드를 보면 환경보존, 자연보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녹화, 조원, 고도산업국가, 복지국가 등 조경의 방향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사회적 인식 결여, 법적 지위 미흡, 영세성, 타분야 종속, 인재 활용 미비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놀랍게도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순환 / 전국시·도공원녹지협의회장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장

조경사회보 100호 발간을 모든 조경인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또한 대학 졸업 후 조경학과 출신 1호 공무원으로서 서울시에 임용된 때가 1980년 5월인데, 조경사회보가 1981년 2월부터 발간되었다고 하니, 35년 이상이란 긴 시간을 함께 한 것에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리고 지난 해부터 행사 정리 위주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조경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발간

우리 조경분야가 학문적으로 깊어지고 산업적으로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경의 정체성과 미래 성장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요즘 건설환경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로 성장으로 인해 조경분야 또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통해 우리 모두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경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던 몇 사업들은 단지 법률에 정해진 바에 의해 전문성이 부족한 타 분야로 분류되어 조경전문가의 참여가 제한되었거나 제한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공정이나 예산 등에서 인근 다른 분야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배출되는 조경전문가들은 유사분야에 비해 더 뛰어난 연구능력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그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한계는 한편으로는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지도가 가능하며, 산업계에서는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연환경보전사업과 같이 기존의 건설업체계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시장은 우리 조경분야 전문가들의 중심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온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경분야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조경사회보 100호를 축하드리며, 조경사회보가 조경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시장변화에 대한 현명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미래 한국의 성장을 이끄는 주역으로서의 조경의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주도하는 책임있는 여론형성자로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산·관·학·연 등 전문가 및 미래 조경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조경인들의 활동을 아우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다하기를 기원합니다. 🍀

한 조경사회보의 시도에 조경사회 회원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말 전합니다.

앞으로도 매분기 발간되는 조경사회보의 보다 멋진 변화와 발전을 기대합니다.

지난 40여년간 조경가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한 곳에서 그 소임을 다해 왔듯이, 이제부터는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오느라 많이 미흡하고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던 조경계의 자존과 권리를 위한 제도개선에 보다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조경인들이 지혜를 모아 뜻을 세우고 마음을 함께 한다면 오늘의 어려움도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조경사회보가 조경인들이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는 그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 🍀

# 특집 : 100번째 만남

Part1 | 조경사회보 100호를 돌아보며 / 최종필 (사)한국조경사회 감사

Part2 | 조경인이 바라본 조경사회보 / 회원 설문

‘창간 후 35년’, ‘지령誌齡 100호’. 서적을 전문적으로 발간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특정 전문분야의 임의 단체 협회지가 거둔 성과(?)라고 생각하니 스스로에 대해 대견함을 느껴도 좋을 듯싶다.

숫자 100의 옛말은 ‘많음’, ‘완전함’을 뜻하는 ‘온’이다. 그만큼 옛사람들은 10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두었다.

‘조경사 100호’에도 우리만의 의미를 부여해도 좋지 않을까? 비록 ‘온’이 뜻하는 ‘완전함’에 이르지지는 못하였지만 지금까지 달려 온 대한민국 조경인 모두의 세월을 돌아보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씩 없이 달려갈 ‘젊은 조경’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0번째 만남’을 특집 기획하였다. 만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는다.

‘101번째 프러포즈’를 시도할 용기勇氣를 얻기 바라며...

Part1 |

## 조경사회보 100호를 돌아보며



최종필 / (사)한국조경사회 감사



창간호

로 영전), 1981년 한국조경사협회 정기총회 소집공고 및 세미나개최 안내, 원예 조경 전시회 개최안내(독일, 슈트가르트), 제19차 국제조경가 연맹 IFLA 세계대회 안내(캐나다, 밴쿠버), 현상모집공고 (한국조경사협회 마크 : 입선 50,000원, 가작 10,000원) 이다. 이어서 1981년 12월까지 년 3회 발행되었다. 하지만 제 2대회장이신 고 장문기 회장으로 넘어오면서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여파로 회보의 발행이 약 5년간 공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조경사회보는 조경사협회의 발족과 동시에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창간호는 1981년 2월에 초대회장 이신 고 민경현 회장의 협회 발족에 즈음하여 라는 글을 시작으로 B5 크기의 4쪽 분량으로 만들어졌다.

주요내용은 협회의 발족, 협회소식, 회원동정(오취영고문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실 제3행정조정관으로 영전),

그 후 3대 서원우 회장이 취임하면서 정영선 이사님을 비롯한 몇몇 이사님 그리고 편집간사진의 헌신적인 노고에 힘입어 제 4호 (86.2)가 속간 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경사회 정기총회 및 이사회 안내, 업체 현황, 회원 동정, 모임 안등을 개재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하여 월간지로 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시대적으로 조경계 화두가 되는 내용들을 1면에 담기 시작하였다.



5호



18호

조경관련 서울시 개정조례 시보로 광고 조경분야 용역품셈작업회의 조경공사 발주현황 2천년대를 향한 윤택하고 쾌적한 인간생활 환경창조의 주역이 됩시다(이종필) '92년 IFLA총회 한국에서 개최확정소식 도심속의 소나무 숲 조성 보호해야 할 '보호수' 이대로 좋은가? 여백의 미(권오준) 국립공원과 관리(안봉원) 조경수목의 가격 적정화(이수길) 독일 조경 전시회소식(정영선) 공원의 계획과 설계(이자형) 등을 다루었다. 특히 제18호('88.11)에는 조경사회의 나아갈 방향(양병이)이라는 주제로 조경사회를 위한 재언과 업체탐방(삼림컨설턴트) 기고를 신기 시작하였다. 회원동정에서는 한국조경연합회 오취영 회장님이 국제조경가협회(IFLA) 아세아지역 부회장으로 피선되었다는 소식도 알렸다.



22호



31호

제22호 ('89.4) 부터는 격월 발행을 원칙으로 하여 발행하였지만 여러가지 대내 외적인 상황에 맞추어 부정기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주요내용들을 보면 제22호('89.4)에는 건설업법 개정에 따른 면허개방에 대하여(편집실) 를 심도있게 다루었으며, 제24호('89.10)에서는 '92 서울 IFLA를 위한 다짐(한현구) 이라는 제목으로 조경인의 위상을 고취하자는 글을 기고하였다.

제 32호 (92.10)에는 조경인, 그 과제와 미래(이우훈) 라는 주제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국내 외적인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글로써 조경인들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현명한 선택의 요구 시점에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기고를 하였다. 제 7대 권오준 회장 책임기인 '93년 12월 (제38)호 부터는 지면을 8쪽으로 늘여서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는 소식지로 발전하였다. 주요 내

제22호 ('89.4) 부터는 격월 발행을 원칙으로 하여 발행하였지만 여러가지 대내 외적인 상황에 맞추어 부정기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주요내용들을 보면 제22호('89.4)에는 건설업법 개정에 따른 면허개방에 대하여(편집실) 를 심도있게 다루었으며, 제24호('89.10)에서는 '92 서울 IFLA를 위한 다짐(한현구) 이라는 제목으로 조경인의 위상을 고취하자는 글을 기고하였다.

1992년에는 '92 IFLA한국총회가 개최되는 해 이기 때문에 제30호 전면에는 IFLA관련 계획 및 진행상황을 자세하게 실었다. 또한, 제31호('92.6)에는 U.R협상에 의한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내건설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건설업 면허체계 개편 추진 움직임에 대해 건설업법 개정방향과 조경계의 대응방안(강인철) 이라는 글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경계의 현황, 개편안의 문제점, 결론 및 건의사항 등을 정리하여 기고하였다.



32호



38호

용은 대동단결하는 조경계를 기대하며(이대우), 개방화 시대 조류에 따른 조경업계의 대응방안(강인철), 정부조직기구 조정에 '조경' 분야 반영건의(권오준), 한국의 조경사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재근), 하천환경의 생태적 복구(최경권), 조경전문기술분야의 특화방안과 정책방향(박인재) 등 조경계의 결속, 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생태라는 용어의 적극적 사용이 시작되었다.



43호

제45호('95.12)부터는 다시 지면을 8쪽으로 줄여서 속간하였는데, 당시 우리나라 조경설계의 개선해야할 점은 물론 제도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와 같은 상태로는 닥쳐오고 있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보아 21C를 향한 조경 설계분야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심포지움이 개최된 바 있어 이를 정리하여 기고(안봉원) 하였고, 변화하는 건설산업에 다함께 대비하자(윤성수), 조경산업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유의열) 등 시대적 흐름 속에서 조경의 입지 구축에 대한 내용도 실었다. 1997년 11월 IMF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건설산업이 긴축경제 저성장으로 최악의 불황국면을 맞고 있는 즈음에 제50호('98.3)에 IMF 시대의 극복과 그 이후를 대비하자(김기성) 라는 글을 기고하여 새로운 조경생존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조경학회와 조경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 개선의 과제(김유일) 라는 주제로 '조경직 공무원 직제의 신설', '조경업역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조경 정보망 구축' 등

제8대 유일열 회장이 취임하면서 제43호('95.4), 제44호('95.8)에 대해 지면을 12쪽으로 확장하여 조경산업의 생태적 접근방향(이경재), 조경공사감리의 현장실무요령(이석손), 조경공사사업 면허현황, 제5회 조경직장인 체육대회 개최 안내 등 다양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실속있게 다루었으며, 특별로 한국조경사회 심볼마크 공모 안내를 하였다.



을 공동노력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을 기고하였다.

1998년~1999년까지의 회보는 우리가 두려워 하는 것은...(조세환), 남 북 화합시대의 조경인 역할(강인철), 주택건설에서의 조경감리의 필요성(정주현),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새천년을 맞이합시다(임상규) 등 현실적으로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스스로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며, 타분야 속에서의 조경역할을 찾아가자는 내용을 담은 글들을 많이 소개하였다.

2000년 들어 지속적으로 발간되어 오던 조경사회보는 한국조경사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됨에 따라 회보의 성격에서 기술지성적으로 EPLA가 창간됨으로써 회보의 발행이 또다시 약 5년간 중단하게 되었다.

제12대 이용훈 회장이 취임하던 2005년 4월, 제 57호를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지금의 책자형태(칼라형)로 재탄생 하였으며, 개간으로 발행하게 되었다.

이제는 회보의 성격을 넘어 조경잡지 수준의 책자가 만들어진 것이다. 많은 지면할애로 조경계의 전반적인 소식은 물론 법적 제도적 사항, 설계/시공 작품리뷰 등 시기적절한 이슈거리로 구성하여 발행하였다. 특히, 제59호(05.8)부터는 신기

술, 신공법, 신제품에 대한 기고를 추가로 배정하여 다루었으며, 제96호(15.3)부터는 특집기사, 고정코너를 통해 조경계가 공유해야할 정보들과 다양한 분야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루어 줌으로써 회원들의 자질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조경사회보는 (사)한국조경사회의 역사는 물론 조경계 전체의 변화와 발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록지이다. 또한 (사)한국조경사회 회원 상호간의 소통을 근간으로 하여 응집된 조직력을 만들어 주는 '모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한국조경사회는 물론 조경계가 살아있다는 것은 조경사회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조경사회보가 지속적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까지는 원고를 집필하고, 편집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머리숙여 감사한다. 앞으로 조경사회보는 지속적으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월간 발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타분야, 유사분야와의 교류 및 융합의 장으로써 역할도 바라며, 대한민국 조경계의 꽃으로 활짝피어나기를 기대한다. 🌸



(사)한국조경사회의 역사는 물론 조경계 전체의 변화와 발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록지이다.



Part2 |

조경인이 바라본 조경사회보

# 100호 설문조사

(가나다순)

1. 100호 축하인사

2. 조경사회에 바라는 점

4. 자유발언

3. 조경사회회에 담겨지길 바라는 주제나 내용

5. 조경사회에 궁금한 점

**강수완**

1. 조경을 위하여 힘써주는 모든 조경인들 모두 박수쳐드리고 싶습니다. 모두힘내세요!
2. 조경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다리역할을 잘 해주고 계시지만 더욱 다양한 활동이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3. 조경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 일을 하는 이유(희열을 느끼는 부분 등)는 무엇이 있었는지에대한 내용이나 반대로 고충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담겨지면 좋겠습니다.
4. 조경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문제가 있다면 함께 머리 말대며 고민해보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정환**

1.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쓰고 계신 현업의 조경인분들과 한국조경사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드리며 1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2. 조경업계의 대표적인 협회로서 조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다 넓혀주시고 조경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설계, 시공 등의 용역이 진행됨에 있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업계내의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책과 개선방향에 대해 공론화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발주시 조경단종회사가 실제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측량, 타공중(전기, 토목 등)설계 등을 발주처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책이 필요할 듯 합니다.

**김동수**

1. 조경사회보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조경인들이 한자리에 모일수 있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회원사들의 시공,설계 사례 신공법이나 새로운 경향등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4. 언제나 회보발간에 관심과 노력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훈**

1. 와..조경사회보가 벌써 100회를 맞이 하였다니 정말정말 축하드립니다.
2. 대한민국 조경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주세요.

- 3. 국가정책에 맞춰 빗물활용에 대한 시스템 구축 및 제품군 소개를 많이 해주세요 :)
- 4. 조경사회의 왕성한 활동으로, 대한민국 조경이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리영**

- 1. 조경사회보의 100호를 축하드립니다.
- 2.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통해 조경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3. 목재활용에 대한 소식도 담아주세요.
- 4. 축하드립니다.

**김선주**

- 1. 조경사회보의 100호가 벌써 되었네요. 많은 일들이 안팎으로 있었던 시간만큼, 조경사회보 역시 많은 조경계의 역사를 잘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경의 역사를 잘 기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2. 조경이라는 분야의 성격상 세상 돌아가는 추세에 따라 오르막과 내리막을 걸어가는 여러 업체들의 대변인으로서 중립적/소통적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자리해주시고.
- 3. 대내외적인 여러 소식이 잘 담겨있는 조경사회보는 조경분야의 일기라 생각합니다. 잘 기록하고 남기어 후대에 귀한 자부심으로 고취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담아주시고.

**김승아**

- 1. 조경사회보 100발간을 축하드립니다
- 2. 젊은 회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3.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열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 간의 인터뷰 내용이 들어간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 4. 조경에 몸담고 계신 분들 모두가 한국조경사회를 통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김시인**

- 1.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수하는 조경사회보로 지속되어 주세요.
- 2. 다양하고 일반적인 조경세계까지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 지역적테마 (대도시위주가 아닌 지방소도시)

- 4. 조경을 전공하고 조경계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김은숙**

- 1. 조경사회보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발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 부산, 대구, 울산 등 각 지회들과 유기적 연대, 업무 추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 3. 조경 관련 분야의 좋은 신간을 소개하는 코너. 국내외 우수 사례 소개 등.
- 4.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 등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해결책을 지원하는 조경사회의 역할이 더욱 커지길 기대합니다.

**김지연**

- 1. 조경사회보 1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 어린 시선으로 조경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때로는 그 해의 뜻깊었던 행사로 조경인들의 만남과 소통, 나눔의 이야기들을 전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뒤에서 조경인들의 든직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 매번은 아니지만 조경사회 행사에 많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조경새내기 다니기엔 어렵고 생소한 자리였지만, 항상 많은 이야기와 칭고, 좋은 말씀들을 듣고 오니 불편했던 것은 잠시,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자리를 꼭 이어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3. 조경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물론, 힘든 현실 속에서도 마음까지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조경사회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4. 앞으로 조경사회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경사회보가 전해주는 소식을 접하며 앞으로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보다 많은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발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세요.

**노재신**

- 1. 어느덧 조경사회보가 100호 발간을 맞았네요. 더욱 알찬 정보 기대합니다.
- 2. 설계, 시공 등 전문적 지식을 소개하는 내용

- 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 3. 일반 회원들의 동정 등도 폭 넓게 소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4. 월간 발행으로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윤재**

- 1. 100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모든 조경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회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 2. 우리가 남이기! 열정과 관심 그리고 배려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자연을 접하는 기술인으로서 정보교류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박명권**

- 1. 조경사회보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정진하기를 기대합니다.
- 2. 조경계의 구심점이 되기를...
- 4. 조경사회장 선거를 경선을 통해 많은 조경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민**

- 1. 한국조경사회 조경사회보 100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산,학,관 협업이 원만하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힘써 주시길 기대합니다.
- 3. 시공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의 소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의 제안
- 4. 전체 조경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들도 연 1회 정도는 있었으면 합니다.

**박주연**

- 1. 20년간 발행된 조경사회보의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2. 앞으로도 조경사회가 발전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 3. 조경사회보를 접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도록하겠습니다.

**박태영**

- 1. 35년의 세월! 100회의 회보 발간! 조경인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 2. 앞으로도 계속 모든 조경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조경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명실상부한 조경의 대표적 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 3. 조경의 영역과 관련단 최신 정보와 해외관련 조경작품들의 소개
- 4. 조경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조경인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배선희**

- 1. 조경인의 한사람으로서 자축의 의미도 담아 축하합니다.
- 2. 1)피부로 느껴지는 조직이 되십시오.(연구를 비롯한 학문적인 부분에서부터 현장에서 조경인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조경인의 어디에든 존재하는 조경사회이기를 바랍니다) 2)그러기 위해서 중앙에 집중된 조직을 전국으로 확대하길바랍니다 (조경인은 전국에서 뛰고있습니다)
- 3) 조경인의 존재감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참여, 이벤트 등-) 그리하여 조경이 나무파고 나무심는 단순한 업종이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보다 나은 환경조성에 고민하는 사람들임을 알려주십시오.
- 3. 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회보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있으면 좋겠습니다.
- 4. 조경의 전통적인 분야와 산림분야나 환경분야와 겹치는 여러 신생산업에 대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봅니다 . 정확한 정보가 넘쳐나는 그래서 자주 방문해야 이익이 되는 곳이길바랍니다.

**서영애**

- 1. 축하드립니다.
- 3. 인접분야와 이해관계가 얽히는 내용에 대해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현돈**

- 1. 조경계의 큰나무!!
- 2. 젊은층의 수렴과 세대간 소통
- 3. 외국정보전파 및 작품발굴
- 4. 조경관련단체가 많아 통합 및 진화가 필요합니다.

**안세현**

- 1. 한국조경의 큰 버팀목인 조경사회보 1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2. 조경사회가 한국조경설계 분야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 3. 젊은 100명의 조경인을 초청하여 좋은 의견을 담아 보시기를
- 4. 조경사회 회장선거를 민주적 절차에 의거

회원들이 참여하는 자유투표로 진행합시다.

**유선희**

- 1. 조경계의 큰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조경사회의 노력에 축하합니다!
- 2. 조경업계의 난제를 발굴 해결하는 큰광장의 역할
- 3. 각계 일반 업체의 신입직원, 경력직원등의 의견을 담자
- 4. 설계 시공 감리 자재 모든업계 분야에 대표 협의체

**윤종면**

- 1. 조경인을 아껴주고 걱정해주는 단체인 (사)한국조경사회에서 발간하는 조경사회보의 100호째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1000호, 10000호 때까지도 조경인의 숨소리를 담은 회보지가 되길 기원합니다.
- 2. 부산, 울산, 대구를 기점으로 하여 지회의 전국적 확대에 대한 담당자를 정함으로 전국적인 조직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3. 현장스케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을 그려나가면서 현장의 어려운 점. 좋은 점. 앞으로의 개선점. 등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많은 조경인들이 현장기술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내용이면 감사하겠습니다.
- 4. 조경기술사 자격증을 설계와 시공 두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많은 기술사를 배출하여 깃2인의 자긍심과 대내외적으로 조경공간 확대에 최일선을 담당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광재**

- 1. (사)한국조경사회 조경사회보의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의 (사)한국조경사회의 모습은 단순히 동종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대한민국 조경에 대해 함께 나아갈 가치와 비전을 찾고 조경발전에 다 같이 힘을 모을 줄 아는 그런 단체로 변모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조경사회보의 100호 발간이 더욱 의미 깊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No.1000, No.10000을 넘어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조경사'로서 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2. 작년 한해, 많은 분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조경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조경진흥법'이 제정되어 올해 초 시행되었고, 그 이면에는 (사)한국조경사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느꼈던 조경인으로서의 뿌듯함이 앞으로도 계속 되길 기대해 봅니다. 더욱 더 조경이란 분야와 조경인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3. 시대적 흐름과 유행의 변화에 따라, 조경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시도나 타분야와의 퓨전 프로젝트 등과 같이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조경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주제나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 (사)한국조경사회 울산시회 화이팅^^

**이규철**

- 1. '조경사회보'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200호 300호 알차게 채워나가시길!! 100호를 맞이하기까지 한국조경사회에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공현장에서 빈번히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설계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특집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석**

- 1. 한국조경사회 회보 100호 발간 축하드립니다.
- 2. 조경사회 회원 간 친목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3. 해외의 선진 정원 소개 코너.
- 4. 시공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이민호**

- 1. 지금껏 힘써주신 한국조경사회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조경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2. 조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경을 더욱더 널리 알려주세요.
- 3. 우리 분야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거리를 다루는 기사
- 4. 조경에는 설계 시공 감리 말고 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경사회에서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주세요

**이소향**

1. 1년에 4번, 35년 동안 발간된 조경사회보, 집행부의 열정과 조경인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대단한 일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조경의 각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명실상부한 조경실무의 중심이 되는 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무열**

1. 우와, 놀랍습니다. 조경사회보의 역사가 30년이 넘었다니... 사람으로치면, 대학졸업 후 사회4,5년차 되는것이겠지요. 긴 시간 동안 역사속에서 조경사회보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을 아는 조경인으로서, 100호발간의 뜻깊은 숫자를 축하드리지 않을 수 없겠네요. 조경사회보 1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2. 아직도 주위에 조경사회 그리고 조경사회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참에 홍보가 잘 되었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조경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조경사회를 통해서 조경인들의 소통의 장이 다양한 채널로 열리어 참여하고픈 조경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 조경사회는 사람의 모임이니,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업체탐방 속의 인물, 또는 조경사회 위원회 속의 인물 등 다양한 세대와 분야의 이야기가 담겨지면 찾아보고픈 회보가 될 것 같아요.
4.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열심히 노력하시는 조경사회 운영진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바쁘고 힘드시는데, 조경사회라는 이름으로 쏟은 시간과 노력에 박수 보내드립니다. 한국조경사회 화이팅!

**이흠**

1. 한국조경사회 조경사회보 100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경인의 단합과 권익, 현장의 애로사항, 법률적 분쟁 등에 더욱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조경 자체 관련 특허, 신기술 및 현장에의 적용 사례 등 소개.
4. 본회와 각 지회 간 유대를 돈독히 해서 정보 교류와 협업이 더욱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임영훈**

1. 조경사회보 100호 발간을 진심 축하드립니다.

- 니다.
2.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역동적인 조경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3. 해외 설계 사례 소개.
  4. 수록 내용이 좀 더 많아지고, 발행 주기도 좀 더 단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자**

1. 1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경인들의 구심점 역할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2. 1)법규나 지침에 없는 근거자료가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2)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3)담당 창구가 있어서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 조경CM(감리)에 대한 업무 현황 ....
4. CM업무를 함에 있어 타공정(전기, 소방 등)은 건축, 토목에 대응하기 위한 차치법 규가 있어 규모에 따른 법적 배치인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경은 기준이 없어서 배치에서 빠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비용절감 차원, 건축인원 연장... 설계단계 배치는 거의 없구요. 법이 절실합니다.

**정대현**

1. 계간지가 100호를 맞이한다는 것은 25년의 세월이 필요하겠지요. 그 오랜기간 한결 같이 지켜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2. 조경하는 사람들의 소통의 공간, 구심점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애**

1. 조경사회보 1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100호까지 나오기까지 발간에 힘써주신 관계자분들 고생하셨어요 ^^
2. 조경사회와 전지역을 아우르며 조경을 대표하는 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3. 일반인들도 쉽게 조경을 알수 있도록 조경의 대한 재밌고 간단한 지식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4. 조경의 발전에 힘써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파이팅입니다!

**정유미**

1. 한국 조경의 역사와 함께 꾸준히 달려온 조경사회보의 100호 발간이 자랑스럽게 느껴 집니다. 축하드리고 조경인 으로서 감사합니다.
2. 힘든 와중에도 다시금 활기를 되찾도록 몽

- 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아울러 조경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바라는 바입니다.
3. 조경사회보는 회원들의 이야기로 담겨지는 회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회원들도 쉽게 참여하여 사회보를 채워 줄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하게 생기길 바랍니다.
  4. 그동안 불철주야 달려온 우리 조경인들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20년 계속해서 발전할 수 한국의 조경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욱**

1. 조경사회보 1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년이 넘게 지켜지고 발전 될 수 있게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00호, 500호, 1000호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더하겠습니다.
2.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조경사회도 뒤쳐지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3. 늘 하던 이야기가 아닌 매순간순간의 관심사에 대해 범위를 정하지 않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만의 이야기가 아닌 조경인의 이야기로 가득차길 기원합니다.
4. 조경사회가 좀 더 젊어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듯 합니다. 젊은 조경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무대의 중심에서 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배님들의 많은 격려와 교육도 필요할 것 입니다.

**정주현**

1. 예전에 사무국장으로 봉사할 때 사회보 전체 자료리스트를 모으기 위해서 창간호부터 챙겨봤던 일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지령 100호가 되었다니 감개무량하다. 전자회보로 바뀌기도 하였다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었지만 꾸준히 이어온 그 정성과 노력에 치하를 드린다. 정말 자축 할 일이다!
2. 이번 회장단에서 회보에 대한 품격을 잘 살려서 보다 내실 있고 가치 있게 만들 것을 더욱 발전적으로 성장시키길 바란다. 가능하면 전문지로서의 자리매김을 해나가길 기대해본다.
3. 작품(설계와 시공)들에 대한 소개나 비평 등을 추가로 점차 담아가셨으면 합니다. 사무

실이나 조경인 소개등도 정기적이고 코너 등이 자리 잡았으면 한다.

- 4. 조경사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 명실상부 최대 조경인 단체로서 위상확립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것은 집행부의 노력과 개별조경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시너지 효과를 내야한다.

**제상호**

- 1. 출타동시
- 2. 업계의 허리층을 아우르는 모임이 되었으면!
- 3. 1~100호 까지 시대별 화두정리!
- 4. 조경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조경에 관심이 있거나, 조경업에 종사를 하면 모두가 조경인이다. 하나가 되고 조경단체의 탄생도 기대하며 100호까지 영원히!

**조한결**

- 1. 100호 발간 축하드립니다!
- 2. 앞으로도 조경계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세요

**천병수**

- 1. 항상 많은 유익한 정보와 글 잘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경 쪽 이슈 사항과 많은 정보공유 부탁드립니다.
- 2. 힘드시더라도 조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3. 현재에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 4. 앞으로 조경사회에서 주체하는 행사에 많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해성**

- 1. 조경사회보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조경인의 권인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 등에 대해 좀 더 능동적인 대응 필요.
- 3. 정원 관련 신동향 등 세부 정보와 신기술의 소개.
- 4. 분량은 적은 관계로 수록 내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좀 더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길 희망.

**최원만**

- 1. 조경사회보 100회째의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승승장구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2. 경기침체에 따른 조경분야의 위축 및 흩어진 목소리를 아우르는 구심점으로서 선도적역할을 기대합니다.

3. 조경사회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간을 만들어 적극적인 참여의 방안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 4. 자유게시판 등 실명으로 참여하면 젊은 계층과 아니면 각 분야(설계, 시공, 자재 등등)가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써 정보공유의 장으로써 한 몫을 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최윤주**

- 1. 100호 발간을 축하한다. 100은 매듭의 완성이면서 새로운 매듭의 이다. 더 큰 발전을 기원한다.
- 2.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조경업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에 매진해주기를 바란다.
- 3. 선진사례들과 트렌드를 소개하고 지역에 대한 특집이 많아졌으면 한다.

**최종필**

- 1. 지금까지 100호 고생하신 분들 총망라해서 축하인사 드립니다.
- 2. 조경사회가 주도적으로 관련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정리 노력 필요하고, 회원사 및 개인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노력 필요

**피영태**

- 1. 조경사회보 100호 발간에 노력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축하합니다.
- 2. 융복합시대에 적응하기위해 산림분야, 환경분야 등 타 분야 전문가들도 회원으로 영입해야 지속발전가능합니다.
- 3. 업체의 성공사례 실패사례 등 다양한 분야 내용을 회보에 작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4. 우물안 개구리 같이 끼리끼리 모인 단체가 아니라 문호를 개방하고 임직원들이 더욱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한명철**

- 1. 축하합니다. 어느덧 100번째 회보가 눈앞이네요. 99번의 산고를 겪은 조경사회보의 건재함은 한국조경사회가 건실하게 존재함을 느낄수 있는 증거입니다. 100번째의 산고도 거뜬히 넘기고 이제 200번째 조경사회보를 향한 힘찬 첫발자욱이라 생각하고 초심을 담은 기록물이 되길 바랍니다.

**한선주**

- 1. 조경사회보가 벌써 100호를 맞이하였네

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항상 한국조경을 이끄는 조경사회보가 되주세요.

- 2. 한국 조경을 이끄는 리더가 돼주세요.
- 3. 국가의 흐름에 맞게 빗물과 물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는 만큼 관련 사업과 제품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해주세요!

**황대을**

- 1.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노고에 감사합니다.
- 2. 조경에 대한 인문학적인 소양을 위한 강연 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3. 선조들이 담아낸 조경(시리즈) ex) 학자, 동산바치 등 대한 이야기
- 4. 회장님 이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황용득**

- 1. 본인이 회장임기에 100호를 맞이하게 된 점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원히 발전하는 조경사회의 소식지로서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내용으로 많은 조경인들의 사랑 받는 소식지가 되길 바랍니다.
- 3. 조경계의 다양한 의경을 담는 종합지로서의 위상을 지녀 모든 조경인들이 기다리는 회보가 되길 바랍니다.

**익명1**

- 1. 100호라는 의미 자체만으로도 그간의 쌓인 노고와 정성에 감사드리고 더불어 축하합니다.
- 4. 조경관련 학계 업계 등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를 조경사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익명2**

- 1. 100이 되기 까지 수고 노력 고생 힘을 보태 주신 분들께 감사. 앞으로 200이 되기까지 더욱 커지는 사회를 바랍니다.
- 2. 발전재단, 진흥재단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진정한 '업'을 하는 단체로 만들어 지길.
- 3. 소그룹 활동 현황, 신문, 월간지도 있지만...
- 4. 더욱 발전하는 사회, 열린사회의 사보! 🍷

※ 5. 조경사회에 궁금한 점에 대한 설문내용과 답변은 다음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 100호 발간 기념 축하광고

국내산 조경용현무암  
자연석 전문생산업체

비에프현무암(주)

문의전화 : 010-8230-3067

홈페이지 : [www.현무암.kr](http://www.현무암.kr)

since 1989

SYNWA CONSULTING

(주) 신화 컨설팅

대표이사: 최원만

synwha@chol.com ☎ 02.545.5903 ☎ 02.549.5905



한국조경개발(주)

우리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Tel. 032-321-9006 / Fax. 032-321-009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15번길 52, 502호



Since 2006

공간과 환경 그리고 인간의 연결고리

(주)디자인가고  
SENCE OF NATURAL DESIGN

두하 엔터프라이즈 (주)

서울시 양재대로71길 1-14 인수빌딩 7층

T. 02-414-1051~3

대표자 이봉경



정원사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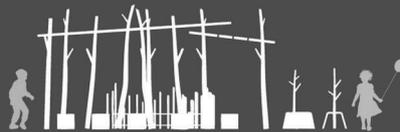
Gardening Friends

Associate with Gram Design & Landscape Jireh

신업디자인문화사 kidp  
DEOSWORKS  
STREET FURNITURE

<http://www.deosworks.com>  
TEL. 02-862-3444 / FAX. 02-862-3449

“자연을 담은 감성의 공간을 완성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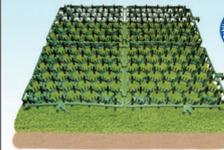


조경사회회

100호를

축하합니다!

천연잔디의 손상이 반복되는 지역  
잔디보호매트로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조달청 우수제품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1889384

잔디보호매트

KEYGREEN

[www.key-green.com](http://www.key-green.com)

키그린(주)

T.0311798-0112

F.0311769-5999

Ekeygreen@naver.com

전자파 잡는 내부전용 벽돌

healing atelier  
힐링아틀리에

(주)공간세라믹 서울사무소

전화 : 02)323-600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5 수서타워 1101

[www.ggceramic.com](http://www.ggceramic.com)

SEOINN

LANDSCAPE ARCHITECTS ASSOCIATE. SINCE 1975

사람과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곳  
서인조경이 만들어낸 디폴입니다



서인조경(주)

LANDSCAPE  
ARCH ASSOCIATE  
SINCE 1975

135-943 서울 강남구 개포로 670 원일빌딩 4F

Tel. 02-563-5088 Fax. 02-563-5087

seoinnla@chol.com

웹하드 : <http://seoinnla.ipdisk.co.kr>

[www.서인조경.com](http://www.서인조경.com)

kidp 신업디자인문화사

play jam

따뜻한 이야기  
꿈은 놀이공간



E-mail : [playjam@chol.com](mailto:playjam@chol.com)  
<http://www.playjam.com>  
TEL : 02-862-0312  
FAX : 02-587-3449

장수산업(주)

자연과 인간을  
생각하는 기업



- 전통정자
- 조경시설물
- 조경식재

TEL: 031-753-0080/FAX: 031-721-6786

[www.monadesign.co.kr](http://www.monadesign.co.kr)  
[www.wonnts.com](http://www.wonnts.com)

원앤티에스

eibe

mona

mona play

독일 친환경 원목 놀이시설물

환경시설물

놀이시설물

(주) 자연숲

(조경식재 공사업, 나무병원)

대표  
최수진

수원사무실: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 4번길  
46, 3층(구운동, 연안빌딩)

용인사무실: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342번길  
16 B05호 (동덕천동, 현대상가)

Tel. 031) 271-3972 Fax. 031) 271-3973

Mobile. 010-3930-9157

E-mail. [spwomen@hanmail.net](mailto:spwomen@hanmail.net)

# 100호 발간 기념 축하광고



**EVOO**  
Environmental Design Co., Ltd.

**이우 환경디자인(주)**  
대표이사 진 승 범  
TEL.02 425 3024, FAX.02 425 3035

팻플러  
벤치  
해피시니어  
피트니스코트  
해먹거치대  
참차화

그린프리즘은 자연과 인간을 중심으로 보다 조화로운 환경과 생활공간으로 밝혀줍니다.

PLANTING & STREET FURNITURE DESIGN

**GREEN PRISM** 대표이사 홍석진

**MA DANG**

Landscape Architects & Associates  
[www.donginmadang.com](http://www.donginmadang.com)

**SpaceTalk**  
for a better space  
[www.spacetalk.co.kr](http://www.spacetalk.co.kr)



**DODAM** **도담조경(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People liking nature,  
People dreaming nature,  
People making nature.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14번길 5 202호  
Tel. 031 - 742 - 3355 Fax. 031 - 747 - 3388  
E-mail. dodam2016@naver.com

**1 the Pool**  
DESIGNPARK 원더풀

물놀이 전문기업은 (주)소담이앤씨입니다.

**Sodam** (주)소담이앤씨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인화로 332, 302  
Tel. 02) 2665 - 6006

**한국조경**

한국조경신문은 조경인의 눈으로 만듭니다.  
기사제보 및 구독문의 02-488-2554

조경사회는  
100호를  
축하합니다!

**(주)강신 C&C · (주)인트로**

대표 박종민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12길36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096  
TEL : (053) 523 - 2005  
FAX : (053) 523 - 2006  
H.P : 010-3825-9185  
E-mail : pkbit@lycos.co.kr

**KEYLIM** (주)계림  
Research & Production

대표이사 계명대학교 도시학부 겸임교수  
**이 흘**  
M. 010-9367-1426

본사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552-2  
T. (대) 1899-9226 / F. 791-9226  
E. la31004@hanmail.net

공장 구미시 고아읍 다석리 254  
T. 054)473-9226 / F. 473-9226

www.ke-lim.com

**화신조경**  
Hwashin landscape architecture

(주)화신조경  
(주)화신ENC  
동명조경(주)

대표이사 **노재신**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225  
T. 053 552.8022 F. 053 552.8023  
H. 010.3536.8022  
E. hwashin97@hanmail.net  
<http://www.hwashin97.com>

**(주)정도 조경연구소**  
Landscape Planning & Design studio

j.e.o.n.g.d.o

**HALIM** Landscape Architecture co., Ltd. (주)하림조경

代表理事 千海成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로 152 (만촌동 427-36)  
TEL. (053)751-1440 FAX. (053)751-1449  
C.P : 010-6685-7490 E-mail: hsung1000@hanmail.net  
www.webhard.co.kr ID : halim1000 PW : 1004

**성삼종합건설(주)**  
주식회사 초원조경

대표이사 **이문석**

mobile : 011. 530. 7711  
E-mail : chown1177@daum.net

본사 : 경북 고령군 개진면 회천로 392-51  
TEL : (054)955-5789

지사 :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320,101/309  
TEL : (053)521-1177  
FAX : (053)521-4477

**강남조경 · (주)벽선**

SINCE 1982

ISO 9001:2008 ANAB

대표 **김은숙** (엔리카)

본사: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910호(계산동2가 매일빌딩)  
TEL:(053) 254-8750, 8919 FAX:(053) 289-3450  
수목원: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5길 111-14  
URL:http://knla.bizdaegu.kr, E-mail:knla1005@hanmail.net  
Mobile : 010-3824-0333

# 100호 발간 기념 축하광고

|  |  |   |
|--|--|---|
| <p>사장<br/><b>김 동 수</b><br/>대구시 담정허물기 자문위원</p>  <p><b>(주)유림조경</b><br/>711-8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21-17<br/>TEL: (053) 551-7471 FAX: (053) 551-7472<br/>H-P: 010-3526-7476<br/>E-mail: ulim0541@hanmail.net</p>  |  <p><b>유명목재산업</b><br/>주식회사 <b>대명우드</b></p> <p>나무를 사랑하는 기업      대표이사 <b>지 명 환</b></p> <p>부산시 강서구 신평길83번길 14(영지동)<br/>TEL: 051)271-3232, 1035, 3203<br/>FAX: 051)271-3288<br/>H.P: 011-593-0389, 010-5593-0389<br/>E-mail: ymwood@naver.com<br/>홈페이지: http://blog.naver.com/ymwood</p> <p>아비동 · 쏘경재 · 자랑재 · 미송 · 견결재 · 파켓트 · 방무옥</p>    |  <p><b>안내판·조형물</b></p> <p>안내판 조달청(다수공급자용통제약)등록, 공공 업체<br/>안내판.kr    인터넷 주소창에 검색해 주세요.</p> <p>[그린루트 대표] ☎ 02-429-1135    ☎ 02-426-1136<br/>☎ 010-9703-1135    ✉ greenroute@hanmail.net</p> <p><b>윤 정 현</b> [본사/공정] 경기도 하남시 고곡로 242번길 156-20 추건옥물 나동<br/>[디자인실]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47-3번지 현대상가 2층 208호</p> |
|  <p><b>유금오</b><br/>010 4550 5086</p> <p>689-86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울리 61-2</p>   |  <p>Landscape Architecture<br/>조경신뢰 및 시설확립지공사<br/><b>명덕조경(주)우림조경</b></p> <p>대표이사<br/><b>이 상 철</b></p> <p>울산광역시 동구<br/>방어진순환도로1164(서부동)<br/>E-mail: 0522325551@daum.net</p> <p>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 울산지부</p>   | <p>조경설계사무소 <b>彬</b></p>  <p>소 장   <b>정 명 렬</b></p> <p>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397-8번지 2F<br/>TEL : (052)248-1481~2<br/>FAX : (052)248-1480<br/>Mobile : 010-2302-1471<br/>E-mail : vin090220@naver.com</p>  |
|  <p><b>삼미조경(株) · 삼미화원</b></p> <p>대표이사 <b>최 윤 주</b></p> <p>울산광역시 중구 서원5길 2(반구동)<br/>Phone/052-294-9991-2<br/>Fax/ 052-281-0777<br/>Mobile/ 010-5476-4201<br/>E-mail/ sami9991@hanmail.n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경식재</li> <li>· 조경시설물</li> <li>· 화환, 꽃바구니, 난</li> </ul> | <p><b>조경사회회</b><br/>100호를<br/>축하합니다!</p>   | <p>대표이사<br/><b>한 일 근</b></p> <p><b>(주)샘조경개발   (주)한림ENG 엔지니어링</b></p> <p>본 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나루터길 171(송)<br/>연구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로 439 (3층)<br/>Telephone, 052, 260, 3654(대) Facsimile, 052, 258, 0254<br/>Mobile, 010.3736.5208<br/>E-mail, saem010@nate.com</p> <p>■ 전문건설업면허(조경식재/ 조경시설물공사) ■ 산림사업면허(송가꾸기/산림토목)</p>  |
|  <p><b>서현개발(주)</b><br/>SeoHyun Dev Co.,Ltd.</p> <p>대 표   <b>박 태 영</b></p> <p>680-808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58번길 23 (우거동 1F)<br/>TEL. (052) 222-4460 FAX. (052) 222-4462<br/>Mobile, 010-9571-9999 E-mail, ugpply@hanmail.net</p>   |  <p><b>(주)수림개발</b><br/>사람과 자연이 하나되는 곳</p> <p>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 산림토목 / 숲가꾸기 / 조림 / 벌목</p> <p>대 표 이 사<br/><b>장 보 근</b></p> <p>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23번길 8, 지우프라자 310호<br/>TEL : (052)275-5770~1<br/>FAX : (052)275-5773<br/>Mobile : 010-4587-6004<br/>E-mail : namu6004@nate.com</p>   | <p><b>애 림 조 경 (주)</b></p> <p>조경식재 공사업 / 시설물</p> <p>대 표   <b>이 철 흥</b></p> <p>울산광역시 중구 병영16길 32 (동동)<br/>TEL. (052) 286-8304<br/>FAX. (052) 286-8305<br/>Mobile, 010-3845-4409<br/>E-mail, yadankr@empai.com</p>   |
| <p><b>축 개 원</b><br/><b>울산조경전문학원</b></p> <p>📍 조경기능사반<br/>📍 조경기사반</p> <p>TEL : 052-248-0222<br/>H.P : 010-4554-6730<br/>울산광역시 중구 옥곡3길 4 (2층)</p>   |  <p><b>(주)유림조경</b><br/>Yu-Lim Landscape Architect.co.,Ltd</p> <p>대표이사 <b>오 석 진</b></p> <p>■ 조경식재공사      689-852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223 안현빌딩5층<br/>■ 조경시설물공사    Tel. 052)248-6541-2 Fax. 052)248-6641<br/>■ 관리공사            Mobile. 010-3574-2134<br/>■ 별개제근 및 파쇄    Webhard. ID : sup6004 PW : 6004<br/>E-mail. tjrwls63@nate.com</p> |  <p><b>한솔기업(주)</b> 조경식재, 시설물설치, 설계, 위생관리용역</p> <p>대표이사 <b>박 귀 비</b><br/>010-3850-0353</p> <p>울산광역시 남구 남산로 128-1<br/>TEL : 052.277.1176<br/>FAX : 052.277.1174<br/>E-mail : hansol033@naver.com</p>   |

## 사진 한 장에 담긴 정원 이야기



김인수 (사)한국조경사회 정원문화연구소 소장 / 환경조형연구소 그린바우 대표



### 스노우스힐 정원 Snowhill Manor Garden / 영국, 브로드웨이 Broadway

스노우스힐 Snowhill 정원의 정원은 코츠월드 Cotswolds 지방의 동화 속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정원의 역사는 9세기부터 시작되며 1919년 건축가 Charles Paget Wade가 소유주가 되기 전까지는 현재 정원이 조성된 부분은 잡초만 우거진 폐허상태였다. 0.8hr의 작은 정원이지만 Wade에 의해 1920년경 전체적인 공간구성의 개념을 중요시하는 건축적 정원양식으로 바뀌었다. 1951년 오랜 여행을 통한 다양한 수집품과 함께 건물과 정원이 National Trust에 기증되면서 일반에게 그 모습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Wade의 정원조성원칙은 첫째는 정원의 공간구성이 아름다운 꽃의 장식보다 먼저이고, 둘째는 정원의 비밀스러운 아름다움은 첫눈에 알아볼 수 없게 숨겨지도록 했다. 방문객들이 여유롭게 산책하면서 정원의 신비함을 스스로 발견하고 놀라워하며 즐기기를 원하고 있다.

건축가의 정원은 혼천의 渾天儀가 있는 마당과 우물이 있는 마당이 두 단의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단과 텃밭, 썩은 가든도 함께 조성되어 있다. 의자, 문, 창문 등 거의 모든 목재부분은 코츠월드 지역에서 Wade-Blue로 불리는 아름다운 블루그린으로 칠해져있다. Wade는 이 색이 건물외벽에 사용된 벌꿀색의 돌과 정원의 녹색 톤과 이상적인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르고  
영리한 사람은 기다리고  
현인은 정원으로 간다. -타고르-

봄날 나만의 비밀정원을 만끽하면서 현인이 되어보면 어떨까? 🍷

## 우리 시대의 생태시 生態詩 읽기

진승범 (사)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 /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이사



### 애기똥풀은 개미가 고맙다

애기똥풀은 개미가 고맙다

내 똥을 가지고 다녀줘서 고맙고  
 그 똥을 먹어줘서 고맙고  
 다 먹지 않고 똥을 조금 남겨줘서 고맙고  
 먹다 남은 똥을 잘 모아줘서 고맙고  
 똥 모은 곳에 생활쓰레기를 같이 버려줘서 고맙고  
 그걸 먹고 내 새끼가 생겨, 잘 자라주니 고맙고  
 그 새끼가 똥을 싸면 개미가 또...

그래서 애기똥풀은 개미가 똥 싸게 고맙다  
 고맙고...고맙고...  
 또, 고맙고

진승범(1961~ ) \_\_\_\_\_

부끄럽게도 등단한지 16년이 넘도록 시집 한 권 상재上梓하지 못한 무명시인이다. 그래도 2000년 등단 이후 한 10년간은 열심히 끄적거리 1년에 서너 차례 문예지에 발표도 하고, 대한민국에 흔하다는 시인이라는 부류의 사람들과 간혹 어울리기도 하였으나 몇 년 전부터는 미친한 글밭이 다했는지 한껏 게으름을 피고 있다. 각설하고, 위의 시는 2005년 봄 격월간 시 전문지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발표했던 졸작拙作 중의 하나다.

애기똥풀은 전국의 발두렁이나 길가, 하천변 등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으며, 5월부터 10월까지 노란 꽃을 피우는 한 해 또는 두 해 살이 풀이다. 특별히 식물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의 눈에는 그저 잡초 정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 모양새를 가졌다. 꽃 또한 화려하지 않고 매혹적인 향기를 지니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번식에 도움이 되는 나비나 벌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명까지 짧은 이 풀이 전국의 산야를 자신의 영역으로 삼을 정도로 세력이 왕성한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애기똥풀의 검은 씨앗 끝부분에 엘라이오솜elaiosome 즉, 종침種枕이라고 하는 지방산, 아미노산, 포도당 등으로 만들어진 화학물질이 붙어있는데, 이것이 겨울을 나는 개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필수 영양원이 된다. 개미는 애기똥풀의 씨앗을 열심히 끌어 모아 엘라이오솜만 떼어먹고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내다 버린다. 땅 속 개미집에서 추운 겨울을 무사히 넘긴 애기똥풀의 씨앗은 개미가 버리고 간 전국의 산간이나 농촌의 길가, 발두렁, 하천변 등에서 싹을 틔워 종족을 이어간다. 이렇게 해서 바람에 날릴 만큼 가볍지도 않고 포유동물의 몸에 들러붙는 성질도 없는 평범한 씨앗을 가진 작은 풀이 전국구로 행세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작은 생명체 하나하나가 모두 제 나름의 존재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각자 삶의 방식을 통해 공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태다. 그리고 그 안의 모든 생명체는 다 소중하며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이다.

이런 소중함과 고마움이 되돌려지는 과정을 통해 생태계의 건강성이 유지됨을 시로 표현해보고 싶었다. 고마움을 강조하기 위해 구성형식도 '기起-승承-전轉-결結'이 아닌 '결-기-승-전'의 역구조를 택했다. 사실 이 시의 결언結言은 제목과 동일한 첫 연 '애기똥풀은 개미가 고맙다' 하나로 족하다. 이후의 2연, 3연은 고마움에 대한 부연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생태계 복잡성의 의미로 애기똥풀과 개미의 관계를 '(씨앗을 개미가) 가지고 다니고, 먹고, 남기고, 모으고, 버리고, (애기똥풀이) 자라고, 똥을 싸는' 복합표현을 구사하였다. 또한 매 행 끝음절의 라임rhyme은 생태계 순환과 반복의 원리를 의미한다.

서로에게 고마워서 아름다운 세상, 그것이 바로 생태계다.

나는, 우리는, 누구에게 똥 싸게 고마운 존재가 될까? 🐜

## 조경관련법규 Q&A



김철홍 (사)한국조경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 자연공원구역

#### 1. 자연공원의 구역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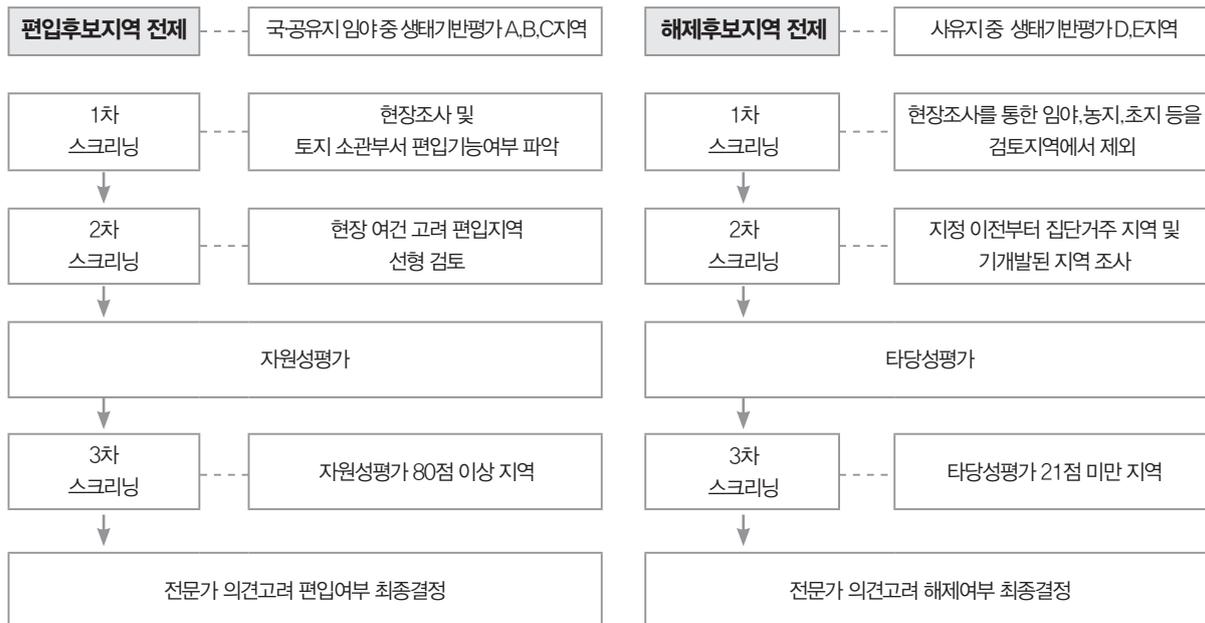
- 자연공원법에서는 공원관리청이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원계획에 반영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 개선 마련 (2008.12.환경부)」

#### 2. 공원구역의 검토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1조의 2 (신설:2009.12.29)(최신개정:2015.1.20)

| 편입검토기준   | 해제검토기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유지를 우선 선정으로 사유권으로 인한 문제발생 사전해소</li> <li>• 공원 경계선 인근의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li> <li>• 보전가치가 높은 도립공원 구역 능선의 반대편의 등</li> <li>•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 산, 하천 등으로 연결된 지형일 경우</li> <li>• 공원구역에 연접한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계곡부 로 공원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li> <li>• 생태기반평가결과 A, B, C 등급 이상 지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전가치가 낮은 기 개발지역(마을, 농경지 등)중 사유지</li> <li>• 공부상 지목 및 토지이용 현황 기준</li> <li>• 생태기반평가 D,E지역</li> <li>• 도로 등으로 단절된 파편화 지역</li> <li>• 구역선에 의해 지적이 분리되는 경우 지적선으로 조정</li> </ul> |

#### 생태기반평가의 절차



### 3. 평가기준

#### 1) 자원성 평가기준

| 구분  | 평가요소                          |
|-----|-------------------------------|
| 자원성 | 자연경관(30), 자연생태계(30), 문화경관(15) |
| 관리성 | 지형보존(15), 토지소유 및 이용(10)       |

#### <자원성평가 결과 활용>

| 자원성 평가점수 | ≥90점 | 80~<90점 | 70~<80점              | <70점      |
|----------|------|---------|----------------------|-----------|
| 편입       | 편입대상 |         | 편입고려대상<br>(전문가의견 고려) | 편입대상지역 제외 |

#### 2) 타당성 평가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내용   |
|-------|-----------------|--|
| 동·식물상 | 생물이동 통로         | 해당 지역이 개발되는 경우 생물이동과 토양내 투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3)                 |
|       | 생태계의 연결성        | 최종적인 조정대상지역이 개발되는 경우 생물종의 이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 (3)                  |
|       | 지역의 생물종 공급의 잠재력 | 최종적인 조정대상지역이 개발될 경우 동식물 종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어느정도 미치는가? (3)             |
| 경관    | 시점의 조망성         | 최종적인 조정대상지역이 개발되는 경우 경관의 조망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 (3)                  |
|       | 시점의 이용성         | 최종적인 조정대상지역이 개발되는 경우 경관의 이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 (3)                   |
|       | 시대상의 중요도        | 최종적인 조정대상지역에서 조망할 수 있는 시대상의 중요도는? (3)                            |
|       | 시대상의 자연성        | 최종적인 조정대상지역에서 조망할 수 있는 시대상의 자연성은? (3)                            |
| 수질    | 지표수의오염          | 최종적인 조정대상지역이 개발되는 경우 중하류의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3)                |
|       | 지하수의 오염         | 최종적인 조정대상지역이 개발되는 경우 지하수의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 (3)                  |
| 지형·지질 | 지형·지질 변화        | 최종적인 조정대상지역이 개발되는 경우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3)         |
|       | 법면발생            | 최종적인 조정대상지역이 개발되는 경우 절·성토공사에 따른 법면발생에 따른 심각한 영향을 발생할 것인가? (3)    |
| 공원관리  | 주민불편 해소         | 최종적인 조정대상지역이 공원구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민불편 해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가? (3)            |
|       | 난개발             | 최종적인 조정대상지역이 공원구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난개발의 가능성이 높은가? (3)                   |
|       | 폐기물 발생          | 최종적인 조정대상지역이 공원구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거주민과 탐방객의 생활일반 폐기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가? (3) |

#### <타당성 평가 항목별 평가내용>

| 타당성 평가점수 | <21점   | 70~<80점         | >31점        |
|----------|--------|-----------------|-------------|
| 해제       | 해제대상지역 | 중립지역(전문가 의견 고려) | 해제대상지역에서 제외 |

### 4. 결론

○자연 공원의 구역은 편입과 해제 기준을 생태적 기반에 따라 자원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여 결정하는 것이 환경 훼손을 최소화, 자연자원의 보존 등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본회소식

## 제36회 정기총회(이사회)

- 일시: 2016년 01월 27일(수) 13:00~
-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1층 대강당
- 주최: (사)한국조경사회
- 협찬: 아세아환경조경, (주)에넥스트, (주)다정하이테크, 데오스웍스



### 주요행사

|      |  |
|------|--|
| 이사회  |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참석   |
|      | 안건- 2015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br>회장단 변경, 자문위원 상임이사 이사 추가선임<br>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br>제19대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선출  |
| 정기총회 | 개 회 사 - 황용득 회장<br>축 사 - 최광빈 국장(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 정주현 이사장((재)환경조경발전재단)<br>특별강연 - 김승환(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동아대학교 명예교수)<br>'국가도시공원과 조경의 역할'<br>기술사패 수여<br>이사회 결과보고 |

### 기술사패 수상자

|      |       |  |
|------|-------|--|
| 기술사패 | 제105회 | 가병석, 김경희, 김인관, 박종완, 박지해, 임현주, 조근영, 최명하 |
|      | 제106회 | 김선교, 김희현, 서정희, 조창완                     |



## 제13회 조경의날

- 일시: 2016년 3월 3일(목) 15:00~17:2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 주최: (사)한국조경학회, (재)환경조경발전재단
- 주관: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사업협의회, (사)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 후원: 국토교통부, 환경부, 서울특별시, 산림청
- 행사내용: 정의화 국회의장 영상축사, 서승환 교수(전,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강연



### 시상내용

|  |
|--|
| 자랑스러운 조경인상   |
| 이은엽(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최정민(순천대학교), 한태호(대림산업(주)), 민영욱((주)특수건설), 황기현(LH 토지주택대학교)<br>윤종면(에코그린랜드(주)), 이소향(데오스웍스), 이정현(선진종합건설(주)), 최종서(주원조경(주)), 최종오(진랜드엔지니어링)<br>김승용((주)아르디온), 설구호((주)장안), 손창섭(키그린(주)) |
|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
| 안승홍(한경대학교), 신복순((주)에넥스트), 오성현((주)태성개발), 하광철(새숲조경(주)), 신정선((주)명진아이노리)<br>류제중(현대산업개발(주)), 란트(주), 문길동(서울시), 김은숙(강남조경), 박태영(서현개발(주))   |
| 환경부장관 표창   |
| 우지근((주)강산), 민윤재(한국조경개발(주)), 양덕석(한국수자원공사)   |
| 서울특별시장 표창  |
| 한명철(데오스웍스), 주상현(우영환경개발(주)), 이조원(원앤티에스(주)), 정재욱((주)스페이스톡)   |
| 산림청장 표창  |
| 이진희(상명대), 장현숙(월간가드닝), 엄기향(푸른마을사람들), 이형철((주)디자인파크개발), 김부식((주)한국조경신문), 이재욱((주)천일)  |

### 2016 사목회

- 일시: 2016년 3월 24일(목)
- 장소: 뉴서울C.C
- 주최:(사)한국조경사회/ 주관:(사)한국조경사회 사목회

## 지회소식

### 부산시회

#### 회장단 신년 워크샵 개최

- 일시: 2016년 1월 8일(금) 18:00~
- 장소: 큐비e센터 3층 세미나실
- 참석: 10명

#### 2015년도 희망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 개소식

- 일시: 2016년 1월 22일
  - 장소: 부산시 남구 감만1동 208-3번지 삼일아파트
  - 후원: (주)에넥스트, 유명목재산업, 대저조경, (주)지오랜드, 수광조경개발
  - 내용: 서용교 지역구 국회의원, 아파트입주민 및 조경사회 회원 등 함께 개소식 진행
- ※ 작업여건이 어려운 점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제7회 정기총회 및 이 취임식

- 일시: 2016년 2월 26일(금) 17:00~21:00
- 장소: (주)롯데호텔부산 펠름
- 참석: 약 150명
- 내용: 송유경 경남종합조경 대표 (사)한국조경사회, 부산시회 제4대 회장으로 취임.  
본회 황용득 회장, 부산시 이근희 기후환경국장 등 참석 신임회장 취임축하



#### 2016년 시민 나무심기 행사

- 일시: 2016년 3월 26일(토) 10:00~14:00
- 장소: 부산 강서구 대저1동 1-15번지 (낙동강 대저생태공원 내)
- 주최: 부산광역시
- 후원: (사)한국조경사회 부산시회
- 참석: 약 50명

## 울산시회

### 이사회 및 역량강화 워크샵

- 일시: 2016년 1월 8일~9일 18:00~10:00 (1박2일)
- 장소: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 참석: 56명
- 주최/주관: (사)한국조경사회 울산시회/복지분과
- 내용: 201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5년도 조경계 이슈 리뷰, 2016년도 분과별 사업계획 발표 및 예산 산정, 조경설계지침서(초안) 전달식, 분과별 시상행사 등



### 울산녹색포럼 창립총회 및 심포지엄

- 일시: 2016년 1월 8일 (월) 15:00~17:00
- 장소: 울산광역시청 본과 2층 시민홀
- 주최/주관: (사)한국조경사회 울산시회/대외협력분과
- 내용: 창립행사 및 심포지엄(기조연설, 주제발표, 지정토론 등) 울산시회 이상철 회장이 녹색포럼 녹지·공원 운영분과장으로 위촉, 박태영 사무국장 전문가 대표 지정토론자로 토론에 참가



### 울산시 남구청 청사조경 자문 간담회

- 일시: 2016년 2월 23일 (화)
- 내용: 청사조경 장·단기계획 자문 및 가로녹지 개선안 자문

### 울산시 식목일 기념식수의 날

- 일시: 2016년 3월 17일 (목) 10:30~
- 내용: 식목일을 맞아 조경사회 회원들이 나무심기행사 참석

### 조경전문강사 양성과정 시행

- 주최/주관: (사)한국조경사회 울산시회/교육분과 ■ 인원: 22명
- 내용: 조경수 생산 및 식재, 조경수관리, 정원의 이해, 조경학개론 등의 과목으로 조경전문 강사 양성 후 조경관련 교육 담당

### 2016년 조경공사설계지침서 발간

- 내용: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조경공사설계지침서 총 320부 발간

## 대구경북시도회

### 회장단 신년교례회

- 일시: 2016년 1월 19일(화)
- 장소: 호남정
- 참석: 집행부 및 회장단 15명

### 산관학 간담회

- 일시: 2016년 1월 26일(화)
- 장소: 모모
- 참석: 대구시 환경녹지국, 대구지역 교수, 집행부 12명

### 계명대학교 공과대학 업무협약(MOU) 체결

- 일시: 2016년 2월 17일(수)
- 장소: 계명대학교 공과대학
- 내용: 조경 및 환경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미래 전문가 양성,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위한 협약



### 2016년 정기총회

- 일시: 2016년 3월 8일(화) 17:00~
- 장소: 알리앙스웨딩 B1F 레브
- 참석: 회원 외 130명
- 내용: 총회 및 특강(백승균 교수, '조경과 사람 그리고 철학')



### 제1회 회장배 골프대회

- 일시: 2016년 4월 12일 (화) 11시
- 장소: 구미CC
- 참석: 회원 43명



## 공지사항

---

### 1. 2016 신기술 신자재 세미나

- 일시: 2016년 04월 22일(금), 14:00~17:00 (2016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 기간 내)
- 장소: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
- 발표업체: 삼우CM건축사사무소, (주)디자인파크개발, (주)이노블록, (주)엔쓰컴퍼니, 명산, 은원솔라사인
- 주최/주관: (사)한국조경사회/(사)한국조경사회 자재·개발위원회

### 2. 2016 조경시공사례지 답사

- 일자: 2016년 05월 11일(수)
- 장소: 인천 영종도 해변공원 외
- 모집인원: 약 80명(선착순 모집)
- 모집대상: 조경인 누구나 참가가능
- 주최/주관: (사)한국조경사회/(사)한국조경사회 시공위원회

### 3. 여성조경인 골프대회

- 일자: 2016년 05월 25일(수)
  - 장소: 이천 마이더스 C.C.
  - 모집인원: 약 40명(10팀 내외)
  - 모집대상: 여성조경인 누구나 참가가능
  - 주최/주관: (사)한국조경사회/(사)한국조경사회 여성위원회
- ※ 초급자를 위한 연습프로그램을 계획되어 있으니, 관심있는 여성조경인께서는 여성위원회 남은희 위원장(010-8736-87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2016 부산 조경 정원박람회

- 일자: 2016년 06월 23(목)~26일(일)
- 장소: 벡스코

### 5. 제26회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

- 일시: 2016년 09월 23일(금), 10:00~18:00
  - 장소: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 주최/주관: (사)한국조경사회/(사)한국조경사회 체육복지위원회
- ※ 단체 및 기업행사 계획 시 사전일정을 참고하시어, 대한민국 조경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본 회보 제작을 위해 사진을 제공해주신 한국조경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회원동정

---

새로운 회원을 소개합니다.

### 1. 개인회원(2016년1월~3월)

최수진(㈜자연숲)

### 2. 기업회원(2016년1월~3월)

아이서비스㈜(시설문유지관리업) 대표이사: 김종수

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5 아이파크타워 II 7층

전화: 02-2008-8581 팩스: 02-2008-8880

이메일: minipark@i-service.co.kr

㈜엔쓰컴퍼니(자재 생산 유통) 대표이사: 허수경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22 효찬빌딩 5층

전화: 02-583-1713 팩스: 02-523-3039

이메일: nth.chargepole@gmail.com

### 인사 안내

강인철 [본회 고문]

2016.3.2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정기총회에서 11대에 이어 12대 감사(회원감사)로 재선

(임기: 2016. 3.22~2019. 3.22 3년)

### 개소 안내

도담조경(주)

대표이사: 조용우 [본회 시공위원회 위원장]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14번길 5 태성빌딩 2층

전화: 031-742-3355 팩스: 031-747-3388

### 이전 안내

㈜씨토포스 [본회 기업회원사]

대표이사: 최신현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5길 37(역삼동, 근도빌딩) 5층

전화: 02-553-0808 팩스: 02-553-8440

㈜경원조경 [본회 기업회원사]

대표이사: 정현호

주소: 경기도 고양 일산서구 주화로 180(대화동, 월드메르디앙)702호

전화: 031-921-4066 팩스: 031-921-4966

※ 소속, 우편발송지, 핸드폰번호, 메일 등 개인정보 변경 시 본회 메일(ksla@chol.com) 또는 사무국(02-565-1712)로 연락주세요.

## 회비 내역 및 협찬 현황

2016년 1월~4월 회비내역 및 협찬현황

| 구분   | 납부내역 |  |
|------|------|--|
| 회장단  | 2016 | 최종필(㈜KG엔지니어링)  |
| 자문위원 | 2016 | 고영창(창·조경), 김광두(㈜원화조경), 남상준(주)현우그린  |
| 상임이사 | 2015 | 장익식(㈜삼우CM건축사사무소), 최연철(재)경기농림진흥재단   |
|      | 2016 | 박영준(서인조경㈜), 서은실(㈜선진엔지니어링), 이동석(㈜대지개발), 정운수(아이에스엔지니어링), 조용호(㈜원앤티에스), 최윤석(㈜그람디자인)  |
| 이사   | 2015 | 김선화(㈜휴다임건축사사무소), 남기준(㈜환경과조경)   |
| 개인회원 | 2015 | 노경아(인천도시공사), 이영종(맥원환경디자인), 최은경(㈜건화), 한승호(한설그린)   |
|      | 2016 | 노경아(인천도시공사), 이우진, 허도행, 한승호(한설그린)   |
|      | 신규   | 최수진(㈜자연숲)  |
| 기업회원 | 2015 | (주)삼우CM건축사사무소(한종률)   |
|      | 2016 | 현대산업개발(주)(박창민)   |
|      | 신규   | (주)아이서비스(김종수), (주)엔쓰컴퍼니(허수경)   |
|      | 2016 | <p><b>제 12회 조경기술세미나 및 조경인 송년의 밤</b><br/>- 1,000,000원: 현대산업개발(주)(김재식, 정몽규)</p> <p><b>조경사회보 제 99호 협찬</b><br/>- 1,000,000원: (주)가림환경개발(전부영)<br/>- 1,000,000원: 데오스웍스(한태환)<br/>- 1,000,000원: 미주강화(주)(윤복모)</p> <p><b>제 36회 정기총회(이사회) 및 리셉션</b><br/>- 3,000,000원: (주)에넥스트(신복순)<br/>- 2,500,000원: 데오스웍스(한태환)<br/>- 1,000,000원: (주)다정하이테크(송미선)<br/>- 기념품협찬(탁장시계150개): (주)다정하이테크(송미선)</p> <p><b>조경사회보 제 100호 연합광고 협찬</b><br/>- (주)공간세라믹(조백일), (주)그람디자인(최윤석), 그린프리즘(주)(홍석진),<br/>두하엔터프라이즈(주)(이봉경), 데오스웍스(한태환), (주)디자인가교(김태용),<br/>비에프현무암(주)(이민호), 서인조경(주)(박영준), (주)신화컨설팅(최원만),<br/>이우환경디자인(주)(진승범), (주)자연숲(최수진), 키그린(주)(손창섭), 한국조경개발(주)(민윤재)</p> |

회비금액 - 명예회장/고문: 연회비 없음, 회장: 6,000,000원, 부회장/감사: 1,000,000원, 상임이사: 200,000원, 이사/기술위원: 150,000원  
자문위원: 100,000원, 정회원(개인회원): 50,000원, 정회원(기업회원): 300,000원

납부방법 - 하나은행 164-910042-86704, 기업은행 132-048923-04-016 예금주: (사)한국조경사회  
(계좌이체시 회원가입 성명과 입금하시는 성명을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후기 Afterwords

- 난산難産 끝에 100호를 내놓는다.  
호랑이를 그리고 싶었으나 결국 고양이와 되고만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편집자로서의 천학비재淺學非才함을 절실히 느낀 시간이었음을 아프고 죄스럽게 고백한다.  
축하글로, 격려글로, 특집원고로, 설문 응답으로, 축하광고로 지면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Bummy
- 관심과 노고 속에서 드디어 조경사회보 100호가 탄생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조경인들이 함께해 주길 희망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Ariel
- 35년의 시간동안 조경사회보는 누군가의 노력과 도움으로 한 호, 한 호가 만들어 졌을 것이다. 그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걷고 싶은 봄길 마냥 보고 싶은 회보가 되었음 하는 바람을 이 봄 가져본다. -주
- 사실 요즘 힘들다. 내가 먹고사는 문제도 그렇고 다른 일 하겠다는 후배에게 더 이상 설득할 말이 없는 딱딱한 현실이다. 조경학과 입학때 주변에서 유망한 분야라고 종종 들던 이야기가 7년이 지난후 사회생활 초년에도 이어졌다. 계속 앞으로 좋아질 분야라는 말만 몇년 째인가 생각했다. 이 바닥에 봄날은 오긴 오는 건지 하며 말이다.  
그런데 또 7년후부터 '경기가 안좋다. 조경계 위기다' 라는 이야기가 고정 레파토리가 된 듯 하다. 100호 편집과 관련하여 지난 기록들을 보니 그 전에도 당시의 위기와 미래에 대한 모색은 꾸준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더불어 현재까지도 그러한 상황들을 각자의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고 타개하려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나만 힘들게 아니구나. 다들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하며 왤치 모를 위안을 느낀다. 앞으로도 정보·소식지의 형태지만 많은 이에게 정서적 기능을 가진 사회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확실한 봄날이 왔으면 좋겠다.  
-울리아빠

## 조경사 회보 원고(제안) 및 광고(협찬) 모집

한국조경사회에서는  
계절마다 회원들에게 찾아가는 조경사 회보가 조경인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알리는 소식지의 성격을 넘어  
다양한 정보의 장이자 소통의 장으로써 점차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경인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매체로써  
회보에 담고자하는 콘텐츠에 관한 제안 뿐만 아니라 집필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협찬을 통해 보다 양질의 회보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조경인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회보 관련 제안 : 자율양식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작성 : 먼저 전화 문의를 주신 후 분량 등의 협의를 거쳐 게재 때 내부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광고(협찬) : A4 사이즈의 전면 광고로 1회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한국조경사회 |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 401(신천동, 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T 02.565.1712 F 02.565.1713 E ksla@chol.com H www.ksla.or.kr

Since 1985



# (주)가림환경개발

의뢰하시면

식재예정지 환경과 조성용토분석, 분석결과에 근거한 맞춤 개량방안 리포트 해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 보존하게 하는 생산과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토양”  
모든 생명의 근원적 터전입니다.**

**환경친화적 개량작용,경제적성장 촉진 종합토양개량제**

**“바이오그로 - BIO GRO”**

**인류가 건강한 삶을 누릴수 있게하는 건강한 토양, 생산력있는 토양을 만듭니다.**

## ◀ 바이오그로의 구성

-토양 물리 화학성 개량에 주작용하는 -식물이 이용할 수있는 형태로 발효시킨  
유기물로 작용 할 수있는 에너지원이 높은 발효정도 30~40범위 고단백 동물성 유기물  
건강한 식물성 유기물을 주재료원으로 광물질,무기물 미생물,환경 친화적개량 작용 물질등  
5군 18종류의 물질로 구성됩니다.

## ◀바이오그로의 생산-현장별 맞춤생산

-경제성 제고,작용과 효과 극대화목적 식재예정지 환경과 식재층 조성예정토의  
물리 화학성 분석결과에 근거한 맞춤 생산을 합니다.

## ◀바이오그로의 개량작용과 효과

- 식물성장 적정범위의 토양물리성 화학성의 조성과 개량작용
- 환경 친화적 개량작용 - 수질,토양환경 오염방지 개량작용
- 발효에 작용한 미생물,배양된 미생물에 의한 지속적 물리 화학성 개량작용
- 경제적 성장,경제적 관리개량작용
- 식물 성장 적정범위 물리,화학성 개량,요구도별 양분공급, 시용된 양분 이온  
흡수 이용율을 높이는 물질, 경제적 성장 촉진 물질의 작용으로 동(同)시비량비  
2배이상의 성장량 증대 착근 후 년 나무체적비 5%이상이 성장되는 경제적생장과
- 관행의 관수횟수, 시비량보다 1/2이 절감되는 경제적 관리 개량 작용을 합니다.

SINCE 1985



토양개량제 분야 최초 신기술 제360호  
발명특허 15개, LH공사 녹색기자재최우수상 수상  
2012년 수자원공사 신기술 협약, 환경부 장관상 수상

- 1985 가림산업 설립
- 1993 바이오그로 - 적정 사용량 및 작용 효과 검증 받음  
(국립산림과학원 환경 52529-75)
- 1996 발명특허 제 096108호, 바이오그로-쏘일I, II, 바이오그로-바크  
염해지, 척박지 토양개량제 및 그를 이용한 식재방법
- 1995 환경친화적 개량 작용물질 '바이오-그로세븐(BG-7) 개발  
~1998 (강원도 농촌진흥원 식물환경과 위탁, 검증받음. 식환51877-51호)
- 2000 ㈜가림환경개발 설립
- 2001 발명특허 제0318811호- 법면녹화토 조성물 및 그를 이용한 녹화공법
- 2002 발명특허 제0329625호 - 바이오그로-크리너 공해에 오염된 식물세척 및  
양분 공급
- 2006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 2007 발명특허 제0697671호 바이오그로-일레븐  
점토질성 미립토 이화학성 개선 및 중금속 오염토양 복원
- 2008 조달청 다수공급자(3자단가) 계약 - 현재까지
- 2011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녹색기자재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발명특허 제1040251호 바이오그로-인산퇴비 - 토양개선 및 식물성장 촉진  
발명특허 제1043581호 바이오그로 크리너II- 제설제 중화작용제  
발명특허 제 1095498호 - 준설토를 이용한 사면의 지표고정방법
- 2012 발명특허 제 1115053호  
환경부 신기술 제360호 받음, 한국수자원공사와 신기술 사용협약  
환경친화적 토양개량제 바이오그로를  
이용한 바다 및 강 준설토의 식물식재기반 강화 기술  
발명특허 제 1198344호 바이오그로 바크 제조방법  
염해지 식재지반 조성을 위한 배수층재 및 이의 제조방법
- 2013 발명특허 제 1232284호 - 염해지용 토양개량제 및 이의 제조방법  
발명특허 제 1232288호 - 척박지용 토양개량제 및 이의 제조방법  
발명특허 제 1232291호 - 다기능성 인산퇴비 및 이의 제조 방법  
GR(우수재활용제품) 지정 - 제 2013 019호
- 2014 토양개량제 K마크 인증 - PM12015-044, PM12014-164  
발명특허 제 1377-3323호-바이오그로크리네스 다기능성 토양오염물질  
제거용 영양크리너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 2015 발명특허 제 1542163호 -바이오그로아트쏘일 인공토양 및 이의 제조방법

since 1985

(주)가림환경개발 **종합토양개량제 '바이오그로'**는

환경친화적 개량작용, 착근 후 체적비 년5% 성장을 하는 경제적 성장 개량작용  
발효시킨 유기물내 미생물에 의한 지속적 개량작용으로 살아 숨쉬는  
건강한 토양. 생산성이 높은 토양을 만듭니다.



◀ **바이오그로-일레븐**

- 바다강바닥 퇴적준설토 개흙, 논토양 물리 화학성개량종합토양 개량제
- 환경신기술 제360호
- K마크 PM12015-044
- 발명특허 1232284호
- 조달등록번호 2028045

**바이오그로-쏘일 I** ▶

- 임해매립지 식재층 조성 토양, 식재층 토양 물리 화학성 개량 과다염치환, 생장촉진 작용 종합토양개량제
- 환경신기술 제360호
- K마크 PM12015-044
- 발명특허 1232284호
- 조달등록번호 20280451



◀ **바이오그로-쏘일 II**

- 대형목 이식, 극적박지, 쓰레기매립지, 생장부적합지 생장촉진 목적 종합토양개량제
- 환경신기술 제360호
- K마크 PM12015-044
- 발명특허 1232288호
- 조달등록번호 20280452

**바이오그로-바크** ▶

- 임해매립지 염함유 모관수 상승차단 및 식재층 과다수분 배수촉진 유기성 배수층조성제
- 환경신기술 제360호
- K마크 PM12015-044
- 발명특허 1198344호



(주)가림환경개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1254번지 양천벤처타운 602-3호



### ◀ 바이오그로-인산퇴비

- 발근촉진, 성장량 증대 목적 식재층 표토하 0.5m내 범위 근권층 토양 물리화학적 개량제
- 환경신기술 제360호
- K마크 PM12015-044
- 발명특허 1040251, 1232291호
- 조달등록번호 21163679

### 바이오그로-조경용 ▶

- 일반식재지 식재혈 토양 물리화학적 개량제



### ◀ 바이오그로-아트소일

- 환경친화적 개량작용·식재목적별 정상적·경제적 생장 실내외 인공지반 식재층 조성용도
- 발명특허 1542163호

### 바이오그로-잔디용 ▶

- 잔디용 I - 그린상토 조성 및 추비용
- 잔디용 II - 웨어웨이 티이 조성 및 추비용
- 잔디용 III - 신설골프장 웨어웨이 조성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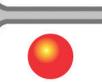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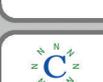
### ◀ 바이오그로-크린에스

- 토양물리·화학적 개량, 수세회복용 추비, 식물체 표면오염물질 용해 세척 과다제설제 치환 중화작용제
- 발명특허 1337-3323호
- 조달등록번호 22564577

# 기업회원사

|   |  |  |  |   |
|---|--|--|--|---|
| <br><b>가가조경(주)</b><br>대표이사 : 이승훈<br>gagala@empal.com<br>Tel. 031-907-6877<br>Fax. 031-907-8633         | <br><b>(주)가나안건설</b><br>대표이사 : 김찬수<br>cna21.com<br>Tel. 02-2040-7722<br>Fax. 02-896-0866                             | <br><b>(주)가림환경개발</b><br>대표이사 : 천부영<br>biogro@hanmail.net<br>Tel. 02-2653-3338<br>Fax. 02-2065-9437          | <br><b>(주)가원조경설계사무소</b><br>대표이사 : 안세현<br>gaone@chol.com<br>Tel. 02-501-2555<br>Fax. 02-501-1742                             | <br><b>가은조경건설(주)</b><br>대표이사 : 김해순<br>landgreen114@hanmail.net<br>Tel. 031-205-2382<br>Fax. 031-239-7621 |
| <br><b>(주)강천</b><br>대표이사 : 여희순<br>da4882@hanmail.net<br>Tel. 062-574-4881<br>Fax. 062-574-4883         | <br><b>거심조경(주)</b><br>대표이사 : 예중서<br>geasam@chol.com<br>Tel. 02-482-1522<br>Fax. 02-482-1526                         | <br><b>(주)CA조경기술사사무소</b><br>대표이사 : 진양교<br>ca03@chol.com<br>Tel. 02-543-4454<br>Fax. 02-543-4450             | <br><b>(주)건림원</b><br>대표이사 : 윤오임<br>ki8160@chol.com<br>Tel. 02-542-8160<br>Fax. 0505-300-8160                                | <br><b>경관제작소 외연</b><br>대표이사 : 장주현<br>jakaj1472@hanmail.net<br>Tel. 031-707-3313<br>Fax. 0303-3447-1472   |
| <br><b>경원조경(주)</b><br>대표이사 : 정현호<br>kw4068@hanmail.net<br>Tel. 031-921-4066<br>Fax. 031-921-4966       | <br><b>경일산업(주)</b><br>대표이사 : 김승모<br>admin@kyungil.com<br>Tel. 02-2648-8000<br>Fax. 02-2648-3763                     | <br><b>주식회사 세주</b><br>대표이사 : 김갑선<br>saeju0969@naver.com<br>Tel. 031-8021-0670<br>Fax. 031-8021-0672         | <br><b>(주)LF네트웍스 고려조경</b><br>대표이사 : 윤유일<br>coryo@korea.com<br>Tel. 02-783-8342<br>Fax. 02-786-1369                          | <br><b>계림플리콘</b><br>대표이사 : 민병윤<br>polycon@polycon.co.kr<br>Tel. 02-573-3885<br>Fax. 02-574-5649          |
| <br><b>계림조경(주)</b><br>대표이사 : 김충일<br>kelim@chol.com<br>Tel. 02-597-5023<br>Fax. 02-597-5028             | <br><b>점토(바닥)벽돌</b><br><b>(주)공간세라믹</b><br>회장 : 조백일<br>gonggan1@chollian.net<br>Tel. 02-569-2800<br>Fax. 02-569-0039 | <br><b>광진산업</b><br>대표이사 : 김영기<br>hys0440@hanmail.net<br>Tel. 053-857-9443<br>Fax. 053-857-9445              | <br><b>그림조경</b><br>대표이사 : 박종철<br>landgreen114@hanmail.net<br>Tel. 031-234-5476<br>Fax. 031-239-7621                         | <br><b>(주)그림·한</b><br>대표이사 : 박명권<br>groupphan@groupphan.com<br>Tel. 02-521-1122<br>Fax. 02-521-9858      |
| <br><b>(주)그림21</b><br>대표이사 : 이용훈<br>groc21@chollian.net<br>Tel. 02-588-2021<br>Fax. 02-588-2024        | <br><b>(주)금강아트웍스</b><br>대표이사 : 전종열<br>artfence@chol.com<br>Tel. 033-745-8373<br>Fax. 033-745-8378                   | <br><b>기단조경기술사사무소(주)</b><br>대표이사 : 윤인규<br>kidaneng@hanmail.net<br>Tel. 051-514-0413<br>Fax. 051-514-0417    | <br><b>기술사사무소 동인조경마당</b><br>대표이사 : 황영철<br>madang96@chollian.net<br>Tel. 02-2202-0293<br>Fax. 02-2202-0294                   | <br><b>(주)기술사사무소아티팩츄러스</b><br>대표이사 : 안상철<br>artec99@chol.com<br>Tel. 02-667-0841<br>Fax. 02-567-0842     |
| <br><b>정진종합조경(주)</b><br>대표이사 : 김창희<br>jeongjinco@hanmail.net<br>Tel. 044-868-7695<br>Fax. 044-868-7696 | <br><b>가을사사무소 예당</b><br>대표이사 : 오두환<br>yedanga@chol.com<br>Tel. 02-6242-3537<br>Fax. 02-6242-3540                    | <br><b>(주)기술사사무소 LET</b><br>대표이사 : 장중수<br>letlet@chol.com<br>Tel. 02-424-7182<br>Fax. 02-424-7175           | <br><b>김중해조경설계(주)</b><br>대표이사 : 김중해<br>kjh9067@chol.com<br>Tel. 031-704-8051<br>Fax. 031-709-8053                           | <br><b>꽃그린</b><br>대표이사 : 김영보<br>flori@hanmail.net<br>Tel. 031-632-5588<br>Fax. 031-633-9044              |
| <br><b>나루의식당</b><br>대표이사 : 김대수<br>naru@woodsign.com<br>Tel. 031-592-4978<br>Fax. 031-592-9984          | <br><b>(주)나루</b><br>대표이사 : 최상돈<br>naru06@chol.com<br>Tel. 02-2051-4155<br>Fax. 02-2051-4157                         | <br><b>뉴웨이브테크놀로지</b><br>대표이사 : 이용현<br>newwave@newwavetech.co.kr<br>Tel. 032-661-0077<br>Fax. 032-661-0079   | <br><b>(주)다우리디자인그룹</b><br>대표이사 : 위영준<br>dawoor@chol.com<br>Tel. 02-575-4508<br>Fax. 0303-3440-4507                          | <br><b>(주)대상이디</b><br>대표이사 : 노주호<br>dsid@dreamwiz.com<br>Tel. 053-765-2223<br>Fax. 053-761-7908          |
| <br><b>대아종합조경(주)</b><br>대표이사 : 강원석<br>daea1211@hanmail.net<br>Tel. 02-585-7700<br>Fax. 051-852-3399  | <br><b>(주)대지개발</b><br>대표이사 : 이동석<br>daei@lifesoil.co.kr<br>Tel. 02-832-3500<br>Fax. 02-844-6012                   | <br><b>데오스웍스</b><br>대표이사 : 한태환<br>deosworks@chol.com<br>Tel. 02-862-3444<br>Fax. 02-862-3449              | <br><b>(주)도광</b><br>대표이사 : 전성미<br>21mirim@naver.com<br>Tel. 032-431-0548<br>Fax. 032-431-0549                             | <br><b>(주)도원도시</b><br>대표이사 : 조정일<br>downcity@chol.com<br>Tel. 02-448-8855<br>Fax. 02-448-1076          |
| <br><b>동림산업</b><br>대표이사 : 김성무<br>tovy@korea.com<br>Tel. 02-585-1119<br>Fax. 031-721-3873             | <br><b>동림개발</b><br>대표이사 : 전영수<br>june1127@naver.com<br>Tel. 02-6211-7712<br>Fax. 02-926-7582                      | <br><b>(주)동심원</b><br>대표이사 : 안계동<br>dsw96@chol.com<br>Tel. 02-544-5674<br>Fax. 02-544-5697                 | <br><b>둥이에스텍(주)</b><br>대표이사 : 함성원<br>dast@dast.co.kr<br>Tel. 031-777-8321<br>Fax. 031-777-8325                            | <br><b>동양워터테크(주)</b><br>대표이사: 장경천<br>fountain@chol.com<br>Tel. 02-486-4900<br>Fax. 031-211-1517        |
| <br><b>(주)동일기술공사</b><br>대표이사 : 김수보<br>psch@dongileng.co.kr<br>Tel. 02-2152-2160<br>Fax. 02-2152-2189 | <br><b>두하엔터테인먼트(주)</b><br>대표이사 : 이봉경<br>duha3@chol.com<br>Tel. 02-414-1051<br>Fax. 02-414-1056                    | <br><b>(주)디자인가교</b><br>대표이사 : 김태용<br>gagyo329@chol.com<br>Tel. 02-564-3680<br>Fax. 02-568-4372            | <br><b>(주)디자인파크개발</b><br>대표이사 : 김오성<br>dp566@hanmail.net<br>Tel. 02-2665-6006<br>Fax. 02-706-9773                         | <br><b>(주)틀과손</b><br>대표이사 : 권준희<br>gowang83@korea.com<br>Tel. 02-451-7579<br>Fax. 02-6258-7579         |
| <br><b>(주)라모디자인그룹</b><br>대표이사 : 이승훈/오재준<br>lamo@lamo.co.kr<br>Tel. 031-709-6614<br>Fax. 031-709-6612 | <br><b>(주)라이브스케이프</b><br>대표이사 : 유승중<br>siyoo@livescape.co.kr<br>Tel. 02-579-4995<br>Fax. 02-2680-2015             | <br><b>(주)라인조경설계사무소</b><br>대표이사 : 윤수희<br>line2297@chol.com<br>Tel. 02-557-5031<br>Fax. 02-557-6629        | <br><b>라펜트(주)</b><br>대표이사 : 오휘영<br>lafent@lafent.com<br>Tel. 031-902-3122<br>Fax. 031-902-3129                            | <br><b>레인보우스케이프(주)</b><br>대표이사 : 정은희<br>ceo@rainbowscape.com<br>Tel. 031-768-1891<br>Fax. 031-768-1894 |
| <br><b>(주)맥디자인</b><br>대표이사 : 박해원<br>mac0570@chol.com<br>Tel. 031-997-0454<br>Fax. 031-997-0456       | <br><b>(주)멜리오유니온랜드</b><br>대표이사 : 황선주<br>seoul@unionland.com<br>Tel. 052-277-4200<br>Fax. 052-265-7227             | <br><b>명산</b><br>대표이사 : 김득일<br>ms0415@chol.com<br>Tel. 02-445-8992<br>Fax. 02-445-8993                    | <br><b>명일조경</b><br>대표이사 : 이혜상<br>201loveyou@naver.com<br>Tel. 02-481-1850<br>Fax. 02-481-1853                             | <br><b>(주)목우환경디자인</b><br>대표이사 : 엄미란<br>mokwoo92@chol.com<br>Tel. 02-501-0206<br>Fax. 02-501-0380       |
| <br><b>(주)미도랜드</b><br>대표이사 : 이무성<br>mslee@midoland.com<br>Tel. 02-536-1348<br>Fax. 031-434-0925      | <br><b>미성조경자재</b><br>대표이사 : 정종민<br>emija@emija.com<br>Tel. 1566-5406<br>Fax. 031-968-2699                         | <br><b>미주강화주식회사</b><br>대표이사 : 윤복모<br>miju33@chol.com<br>Tel. 02-475-1736<br>Fax. 02-472-1098              | <br><b>방림이엘씨(주)</b><br>대표이사 : 김재준<br>banglimcorp@hanmail.net<br>Tel. 02-572-4401<br>Fax. 02-572-4415                      | <br><b>(주)배림조경개발</b><br>대표이사 : 김승환<br>b582@chol.com<br>Tel. 02-532-7417<br>Fax. 02-532-8425            |
| <br><b>백상엘앤씨(주)</b><br>대표이사 : 조현재<br>bsland@unitel.co.kr<br>Tel. 031-782-5900<br>Fax. 031-782-5902   | <br><b>북한산조경개발</b><br>대표이사 : 문기수<br>mks5775@naver.com<br>Tel. 031-965-2335<br>Fax. 031-964-8523                   | <br><b>비엔지(주)</b><br>대표이사: 이병렬<br>bg21@chol.com<br>Tel. 031-761-5313<br>Fax. 031-766-5314                 | <br><b>BF현무암 (주)</b><br><b>비에프현무암(주)</b><br>대표이사 : 이민호<br>alpha0820@hotmail.com<br>Tel. 031-851-3067<br>Fax. 031-853-3067 | <br><b>(주)비오엔씨</b><br>대표이사 : 최재혁<br>beoheno@korea.com<br>Tel. 02-425-4954<br>Fax. 02-425-4943          |
| <br><b>천지조경(주)</b><br>대표이사 : 정국선<br>chunjik@chol.com<br>Tel. 02-388-3707<br>Fax. 02-388-3710         | <br><b>삼성물산주식회사</b><br>대표이사 : 최치훈<br>scntwebmaster@samsung.com<br>Tel. 02-2145-2114                               | <br><b>서인조경(주)</b><br>대표이사 : 박영준<br>seoinna@chol.com<br>Tel. 02-563-5088<br>Fax. 02-563-5087              | <br><b>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b><br>대표이사 : 한중률<br>jinsherb@hanmail.net<br>Tel. 02-3400-3114<br>Fax. 02-3400-3584                     | <br><b>(주)신우엔지</b><br>대표이사 : 김순하<br>sinwlighting@naver.com<br>Tel. 033-662-3099<br>Fax. 033-662-3099   |
| <br><b>상흥엘앤씨(주)</b><br>대표이사 : 정복현<br>shla93@chol.com<br>Tel. 032-425-7007<br>Fax. 032-425-7008       | <br><b>상록건설(주)</b><br>대표이사 : 김창환<br>ss4572@srconst.com<br>Tel. 032-556-2066<br>Fax. 032-556-2067                  | <br><b>상록조경(주)</b><br>대표이사 : 김주환<br>saroc@hanmail.net<br>Tel. 041-592-7442<br>Fax. 041-592-7446           | <br><b>새한그린</b><br>대표이사 : 박광일<br>saeahn2003@empal.com<br>Tel. 02-2138-1000<br>Fax. 02-2138-1005                           | <br><b>(주)새우엔엘</b><br>대표이사 : 이익훈<br>ih@saem.co.kr<br>Tel. 02-3487-2222<br>Fax. 02-3487-2332            |
| <br><b>서경건설개발(주)</b><br>대표이사 : 오성근<br>land02@hanmail.net<br>Tel. 02-501-9140<br>Fax. 02-501-9259     | <br><b>(주)서브원</b><br>대표이사 : 이규홍<br>kong1007@serveone.co.kr<br>Tel. 031-8026-6674<br>Fax. 031-8026-6611            | <br><b>서인알앤디조경디자인(주)</b><br>대표이사 : 신현도<br>shinhyeondon@korea.com<br>Tel. 02-576-5171<br>Fax. 02-3463-7009 | <br><b>승진조경(주)</b><br>대표이사 : 곽원재<br>splus2010@naver.com<br>Tel. 02-543-6601<br>Fax. 02-543-6698                           | <br><b>(주)서울나무병원</b><br>대표이사 : 이승재<br>kg7701@hite.net<br>Tel. 031-889-9119<br>Fax. 031-889-8080        |

# 기업회원사

|  |  |  |   |  |
|--|--|--|---|--|
|  <p>(주)서호에코탑<br/>대표이사 : 서관성<br/>seohoblock@hanmail.net<br/>Tel. 02-547-4136~7<br/>Fax. 02-547-4134</p>      |  <p>(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br/>대표이사 : 유상천<br/>huheun@sunjin.co.kr<br/>Tel. 02-2670-5659<br/>Fax. 02-2670-5658</p> |  <p>성우라이트<br/>대표이사 : 박억진<br/>4736000@naver.com<br/>Tel. 02-473-6000<br/>Fax. 02-479-4433</p>            |  <p>성우위터피아건설<br/>대표이사 : 이운식<br/>sungju97@korea.com<br/>Tel. 02-2060-7595<br/>Fax. 02-2060-7597</p>       |  <p>(주)성호엔지니어링<br/>대표이사 : 이유경<br/>lascap@chol.com<br/>Tel. 02-3400-6800<br/>Fax. 02-3480-6810</p>       |
|  <p>주식회사 세인환경디자인<br/>대표이사 : 박건형<br/>seined@naver.com<br/>Tel. 02-877-8895<br/>Fax. 02-877-8812</p>          |  <p>세림조경건설(주)<br/>대표이사 : 심왕선<br/>selmia@chol.com<br/>Tel. 02-577-2231<br/>Fax. 02-577-6897</p>                |  <p>세양조경(주)<br/>대표이사 : 박상원<br/>seyang@chol.com<br/>Tel. 031-275-3561-3<br/>Fax. 031-275-3564</p>        |  <p>(주)송림원<br/>대표이사 : 박상규<br/>treeyim@hanmail.net<br/>Tel. 02-586-0025<br/>Fax. 02-581-5225</p>          |  <p>(주)수프로<br/>대표이사 : 채일<br/>ceo@yahoo.co.kr<br/>Tel. 02-578-4532<br/>Fax. 02-6008-2453</p>             |
|  <p>수하미조경주식회사<br/>대표이사 : 박영희<br/>4300921@naver.com<br/>Tel. 02-430-0923<br/>Fax. 02-430-0925</p>            |  <p>(주)스페이스톡<br/>대표이사 : 정재욱<br/>master@spacetalk.co.kr<br/>Tel. 02-525-3274<br/>Fax. 02-525-3276</p>          |  <p>(주)스프캐미<br/>대표이사 : 박순자<br/>spc6214@hanmail.net<br/>Tel. 031-389-8890~1<br/>Fax. 031-389-8892</p>    |  <p>신림산업(주)<br/>대표이사 : 방송준<br/>sinrim23@hanmail.net<br/>Tel. 031-389-8890~1<br/>Fax. 031-389-8892</p>    |  <p>신성종합조경(주)<br/>대표이사 : 최효영<br/>ssi2000@hanmail.net<br/>Tel. 02-2052-7194<br/>Fax. 02-2052-7011</p>    |
|  <p>SW도로안전<br/>대표이사 : 신희수<br/>sin0293@hanmail.net<br/>Tel. 032-761-0336<br/>Fax. 032-761-0357</p>           |  <p>(주)신화건설링<br/>대표이사 : 최원만<br/>synwhe@chol.com<br/>Tel. 02-545-5903<br/>Fax. 02-549-5905</p>                 |  <p>(주)씨토포스<br/>대표이사 : 최선현<br/>assum@assum.co.kr<br/>Tel. 02-553-0808<br/>Fax. 02-553-8440</p>          |  <p>아셈<br/>대표이사 : 권오병<br/>assum@assum.co.kr<br/>Tel. 02-502-0724<br/>Fax. 02-502-0725</p>                |  <p>아이서비스(주)<br/>대표이사 : 김중수<br/>minipark@-service.co.kr<br/>Tel. 02-2008-8581<br/>Fax. 02-2008-8880</p> |
|  <p>(주)아쿠아테크코리아<br/>대표이사 : 장진수<br/>aquatech@unitel.co.kr<br/>Tel. 031-471-4756<br/>Fax. 031-471-4770</p>    |  <p>안스디자인<br/>대표이사 : 안영애<br/>ad003@chol.com<br/>Tel. 02-3448-5677<br/>Fax. 02-3448-5676</p>                   |  <p>(주)에넥스트<br/>대표이사 : 신복순<br/>enext2002@hanmail.net<br/>Tel. 1544-9611<br/>Fax. 051-920-2744</p>       |  <p>(주)에버그린필드<br/>대표이사 : 김호열<br/>hyso440@hanmail.net<br/>Tel. 053-744-0440<br/>Fax. 053-793-0444</p>     |  <p>에스파스조경<br/>대표이사 : 정미숙<br/>espac@empal.com<br/>Tel. 02-482-1758<br/>Fax. 02-483-1758</p>             |
|  <p>에코아트조경(주)<br/>대표이사 : 정인영<br/>dongwool088@naver.com<br/>Tel. 031-595-9260<br/>Fax. 02-2279-1600</p>      |  <p>에코앤바이오(주)<br/>대표이사 : 장성완<br/>edla@econbio.com<br/>Tel. 031-595-9260<br/>Fax. 031-595-9263</p>             |  <p>(주)에코톤<br/>대표이사 : 송병헌<br/>kangsh@ecotonelu.com<br/>Tel. 070-8808-5499<br/>Fax. 031-713-0629</p>     |  <p>(주)에코스타일<br/>대표이사 : 명시호<br/>ecostyle1@naver.co.kr<br/>Tel. 041-885-9003<br/>Fax. 041-885-9003</p>    |  <p>(주)에프씨코리아랜드<br/>대표이사 : 성세경<br/>fc4u@hanmail.net<br/>Tel. 02-3141-1174<br/>Fax. 02-3141-1175</p>     |
|  <p>(주)엔스컴퍼니<br/>대표이사 : 허수경<br/>nh.chargepole@gmail.com<br/>Tel. 02-583-1713<br/>Fax. 02-523-3039</p>       |  <p>(주)엔엠에스<br/>대표이사 : 신선숙<br/>sss4875@naver.com<br/>Tel. 043-882-3933<br/>Fax. 0505-115-3933</p>             |  <p>(주)엘그린<br/>대표이사 : 이성호<br/>lgreen@naver.com<br/>Tel. 02-572-8643<br/>Fax. 02-572-1149</p>            |  <p>주식회사 엘티아이조경산업<br/>대표이사 : 김형수<br/>lotteww@hanmail.net<br/>Tel. 031-675-6018<br/>Fax. 031-675-6019</p> |  <p>엘메하원<br/>대표이사 : 이춘희<br/>yulimae@hanmail.net<br/>Tel. 02-502-0508<br/>Fax. 02-503-0629</p>           |
|  <p>영림조경건설(주)<br/>대표이사 : 한옥근<br/>ylal994@chol.com<br/>Tel. 02-960-1981<br/>Fax. 02-967-9725</p>            |  <p>(주)예건<br/>대표이사 : 노영일<br/>yekun@chol.com<br/>Tel. 031-943-6114<br/>Fax. 031-943-6698</p>                  |  <p>(주)예원&amp;포아이가든<br/>대표이사 : 변봉기<br/>yesone@olec.com<br/>Tel. 051-816-6773<br/>Fax. 051-816-8245</p> |  <p>(주)오엘컨설팅<br/>대표이사 : 변봉기<br/>evodia@olec.com<br/>Tel. 051-816-6773<br/>Fax. 051-816-8245</p>         |  <p>(주)은유조경<br/>대표이사 : 김경식<br/>onuland@naver.com<br/>Tel. 02-578-4410<br/>Fax. 02-578-4471</p>         |
|  <p>(주)은주조경<br/>대표이사 : 서동진<br/>onjoc5450884@hanmail.net<br/>Tel. 041-545-0884<br/>Fax. 041-544-0884</p>   |  <p>윙로템파크코프 수목장<br/>대표이사 : 최성근<br/>rodem299@naver.com<br/>Tel. 031-321-0044<br/>Fax. 031-321-0202</p>       |  <p>우영조경건설(주)<br/>대표이사 : 주경수<br/>woo-94@hanmail.net<br/>Tel. 031-266-6801<br/>Fax. 031-575-6840</p>   |  <p>우인아일랜드<br/>대표이사 : 류근환<br/>wooincon@naver.com<br/>Tel. 032-462-3300<br/>Fax. 0303-3130-3306</p>     |  <p>원기업주식회사<br/>대표이사 : 정삼진<br/>cjin0413@hanmail.net<br/>Tel. 02-418-2428<br/>Fax. 070-4015-3114</p>   |
|  <p>원석조경건축(주)<br/>대표이사 : 고현표<br/>syp@wonsuk.co.kr<br/>Tel. 031-708-8644<br/>Fax. 031-713-3924</p>         |  <p>(주)원엔티에스<br/>대표이사 : 이조원<br/>wonnts@hanmail.net<br/>Tel. 02-338-2882<br/>Fax. 02-338-7890</p>            |  <p>유림조경기술사사무소<br/>대표이사 : 김은성<br/>yurimla@chol.com<br/>Tel. 02-579-4815<br/>Fax. 02-579-4817</p>      |  <p>LG하우시스<br/>대표이사 : 오정수<br/>sdaesim@ghusys.com<br/>Tel. 02-3773-7897<br/>Fax. 02-3773-7598</p>       |  <p>유림종합조경(주)<br/>대표이사 : 노홍주<br/>yulsandscape@chol.com<br/>Tel. 02-579-0345<br/>Fax. 02-579-0347</p>  |
|  <p>육림조경(주)<br/>대표이사 : 육경준<br/>iyookim@hanmir.com<br/>Tel. 02-502-6226<br/>Fax. 02-503-6595</p>           |  <p>(주)은강조경산업<br/>대표이사 : 서해석<br/>ekland2002@hanmail.net<br/>Tel. 02-412-7146<br/>Fax. 02-412-7147</p>       |  <p>(주)은평조경<br/>대표이사 : 홍석설<br/>hjs20c@hanmail.net<br/>Tel. 02-577-7260<br/>Fax. 02-579-7888</p>       |  <p>(주)이건환경<br/>대표이사 : 박승준<br/>gland@eagon.com<br/>Tel. 031-999-3830<br/>Fax. 031-987-9150</p>         |  <p>(주)이노블록<br/>대표이사 : 한용택<br/>hany49@hanmail.net<br/>Tel. 031-358-4711<br/>Fax. 031-358-4714</p>     |
|  <p>이랜드체육산업(주)<br/>대표이사 : 조석현<br/>eland21c@naver.com<br/>Tel. 032-564-7681<br/>Fax. 032-564-7684</p>      | (주)이산 logo" data-bbox="255 600 315 635"/> <p>(주)이산<br/>대표이사 : 이원찬<br/>la@nwks.co.kr<br/>Tel. 031-389-0286<br/>Fax. 031-389-0298</p>  |  <p>이명해화연구소<br/>대표이사 : 이명혜<br/>flodeco@hanmail.net<br/>Tel. 02-446-0347<br/>Fax. 031-637-5498</p>     |  <p>이우드코리아<br/>대표이사 : 이근식<br/>lkunsig@hanmail.net<br/>Tel. 02-446-0347<br/>Fax. 02-446-0361</p>        |  <p>이우환경디자인(주)<br/>대표이사 : 진승범<br/>ewooenvo@naver.com<br/>Tel. 02-425-3024<br/>Fax. 02-425-3035</p>    |
|  <p>(주)인테크<br/>대표이사 : 김재훈<br/>rubbermat55@naver.com<br/>Tel. 031-989-6142<br/>Fax. 031-989-6144</p>       |  <p>일영산업<br/>대표이사 : 박왕진<br/>tree7410@naver.com<br/>Tel. 02-2213-0924<br/>Fax. 02-2213-5445</p>              |  <p>임광조경(주)<br/>대표이사 : 임성광<br/>limkwang0817@hanmail.net<br/>Tel. 02-573-3042<br/>Fax. 02-529-7864</p> |  <p>임병을컴퍼니<br/>대표이사 : 임병을<br/>admin@eulcom.net<br/>Tel. 032-266-3210<br/>Fax. 032-266-3219</p>         |  <p>(주)자연과환경<br/>대표이사 : 정대열<br/>hawky@nate.com<br/>Tel. 02-557-9951<br/>Fax. 02-557-9830</p>          |
|  <p>자연제주<br/>대표이사 : 이석창<br/>jeju2345@bill36524.com<br/>Tel. 064-733-2345<br/>Fax. 064-762-2345</p>        |  <p>주식회사 자인<br/>대표이사 : 박주현<br/>zaingroup@naver.com<br/>Tel. 02-6289-5100~1<br/>Fax. 02-6289-5102</p>        |  <p>전원조경<br/>대표이사 : 채희용<br/>jwa0364@hanmail.net<br/>Tel. 031-592-5124<br/>Fax. 031-592-0365</p>       |  <p>정수산업(주)<br/>대표이사 : 김현욱<br/>js0080@chol.com<br/>Tel. 031-753-0080<br/>Fax. 031-721-6786</p>         |  <p>정우조경(주)<br/>대표이사 : 박태욱<br/>jue85@hanmail.net<br/>Tel. 02-2252-0815<br/>Fax. 02-2252-0816</p>      |
|  <p>(주)장원조경<br/>대표이사 : 신경준<br/>shin2460@hanmail.net<br/>Tel. 02-578-4590<br/>Fax. 02-578-4591</p>         |  <p>장원환경디자인<br/>대표이사 : 김민중<br/>jeng10@nate.com<br/>Tel. 043-222-3719<br/>Fax. 043-222-3720</p>              |  <p>(주)정경원<br/>대표이사 : 오길현<br/>jklandscape@chol.com<br/>Tel. 02-3448-5124<br/>Fax. 02-3448-5128</p>    |  <p>(주)정화조경<br/>대표이사 : 정영환<br/>chung9388@hanmail.net<br/>Tel. 02-415-2588<br/>Fax. 02-415-2588</p>     |  |
|  <p>(주)제일에코택<br/>대표이사 : 박은희<br/>jucheil@chol.com<br/>Tel. 02-3463-6856<br/>Fax. 02-3463-6858</p>          |  <p>조경디자인(주)<br/>대표이사 : 이재연<br/>lhyn@hyn.com<br/>Tel. 02-516-4222<br/>Fax. 02-516-4297</p>                  |  <p>(주)조경사 엔앤씨<br/>대표이사 : 김성찬<br/>ksdcj@hanmail.net<br/>Tel. 031-889-6710<br/>Fax. 031-889-6106</p>   |  <p>(주)조경설계 비욘드<br/>대표이사 : 노환기<br/>beyond@chol.com<br/>Tel. 02-2202-2050<br/>Fax. 02-2202-0597</p>     |  <p>(주)조경설계 서안<br/>대표이사 : 정영선<br/>satlla@chol.com<br/>Tel. 02-579-7008<br/>Fax. 02-576-7009</p>       |
|  <p>(주)join조경<br/>대표이사 : 김영일<br/>joinland@joinlands.co.kr<br/>Tel. 031-544-4414<br/>Fax. 031-544-4415</p> |  <p>지오조경기술사사무소<br/>대표이사 : 이상진<br/>gola1999@chol.com<br/>Tel. 02-501-0935<br/>Fax. 02-501-0959</p>           |  <p>진랜드엔지니어링<br/>대표이사 : 최종오<br/>jinland2@daum.net<br/>Tel. 02-2628-5680<br/>Fax. 02-2628-5688</p>     |  <p>진성엔지니어링<br/>대표이사 : 최종훈<br/>aerolarp@chol.com<br/>Tel. 02-561-3020<br/>Fax. 02-561-3044</p>         |  <p>진성종합건설<br/>대표이사 : 김태웅<br/>escapadavid@empal.com<br/>Tel. 031-706-3931<br/>Fax. 031-706-3928</p>   |

# 기업회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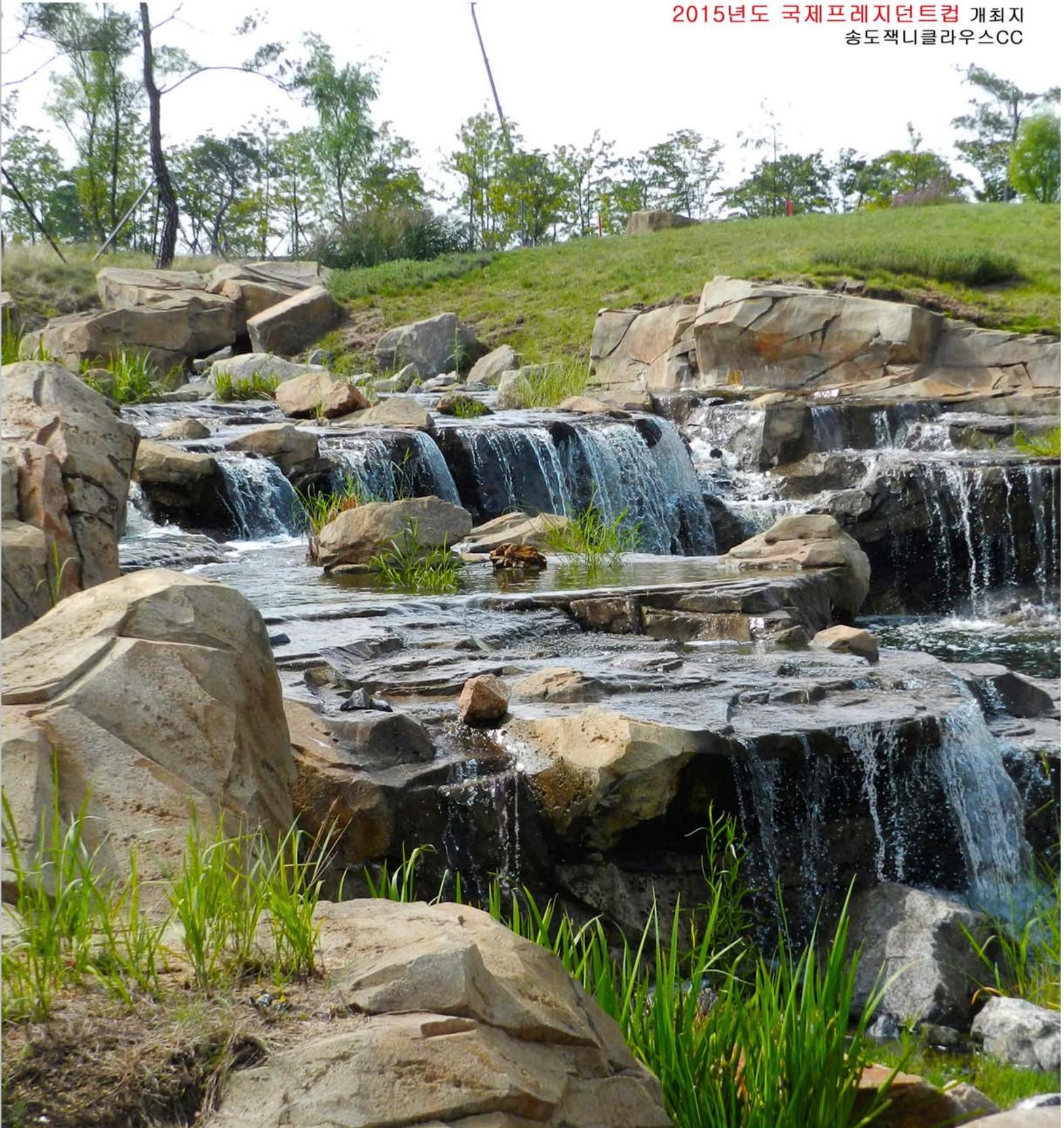
|  |  |   |  |   |
|--|--|---|--|---|
| <br><b>진솔환경주식회사</b><br>대표이사 : 김옥희<br>sungyeun@hanmail.net<br>Tel. 031-262-9881<br>Fax. 031-262-9882                       | <br><b>참대JNC 조경설계사무소</b><br>대표이사 : 홍갑진<br>cdjnc@chol.com<br>Tel. 02-413-5604<br>Fax. 02-413-5669        | <br><b>CHAEUM</b><br>차움 조경기술사무소<br>(주)재움조경기술사무소<br>대표이사 : 김병채<br>chaeum@chol.com<br>Tel. 02-423-7611<br>Fax. 02-423-7613   | <br><b>(주)천마이앤씨</b><br>대표이사 : 제상호<br>cmenc@chol.com<br>Tel. 02-576-1041<br>Fax. 02-576-1817                 | <br><b>철박물관</b><br>대표이사 : 장인경<br>chilbakkwan@naver.com<br>Tel. 043-883-2321<br>Fax. 043-883-2322                                     |
| <br><b>(주)청정엔지니어링</b><br>대표이사 : 장대수<br>skjids@hanmail.net<br>Tel. 031-508-6323<br>Fax. 031-508-3518                       | <br><b>청우개발</b><br>대표이사 : 이재홍<br>cwdo@chungwoo.co.kr<br>Tel. 02-3489-2000<br>Fax. 02-522-6349           | <br><b>JNC</b><br>JNC<br>(주)청원조경(주)<br>대표이사 : 하석일<br>nofada119@hanmail.net<br>Tel. 031-776-3111~2<br>Fax. 031-776-3113     | <br><b>(주)청림종합기술</b><br>대표이사 : 심창진<br>land3670@chol.com<br>Tel. 02-406-2987<br>Fax. 02-406-3670             | <br><b>(주)케이엘에스</b><br>대표이사 : 정길균<br>ks@ksl.or.kr<br>Tel. 031-434-1038<br>Fax. 031-434-1039  |
| <br><b>코비텍</b><br>대표이사 : 권우중<br>gasolsong@hanmail.net<br>Tel. 031-797-6820<br>Fax. 031-797-6821                           | <br><b>코오통글로텍(주)</b><br>대표이사 : 최석순<br>gjotechir@kolon.com<br>Tel. 02-3677-5895<br>Fax. 02-3677-5903     | <br><b>KOMPAN</b><br>Kompan<br>(주)컴판코리아(주)<br>대표이사 : 이세근<br>kids@kompankorea.com<br>Tel. 02-3473-9617<br>Fax. 02-3473-9675 | <br><b>키그린(주)</b><br>대표이사 : 손창섭<br>keygreen@naver.com<br>Tel. 031-548-1199<br>Fax. 070-8673-8572            | <br><b>PEC</b><br>PEC<br>(주)평화엔지니어링<br>대표이사 : 박수웅<br>rick@pec.ne.kr<br>Tel. 031-420-7804<br>Fax. 031-420-7810                        |
| <br><b>포스코건설</b><br>대표이사 : 정동화<br>138186@poscoenc.com<br>Tel. 032-748-2777<br>Fax. 032-748-4043                           | <br><b>푸른나무조경(주)</b><br>대표이사 : 이영욱<br>poorun@hanmail.net<br>Tel. 032-885-9853<br>Fax. 032-885-9854      | <br><b>PURUMBIO</b><br>이푸름바이오<br>(주)푸름바이오<br>대표이사 : 박현준<br>purum1@hanmail.net<br>Tel. 031-291-3375<br>Fax. 031-291-3374    | <br><b>풍산조경(주)</b><br>대표이사 : 한순희<br>poongsan1@hanmail.net<br>Tel. 032-566-4862<br>Fax. 032-566-4863         | <br><b>(주)태홍F&amp;G</b><br>대표이사 : 이종수<br>thfng@naver.com<br>Tel. 02-2611-0810<br>Fax. 02-2611-0833                                   |
| <br><b>todam</b><br>대표이사 : 김연희<br>soap2k@naver.com<br>Tel. 031-8001-0017<br>Fax. 031-281-0105                             | <br><b>트랜스코리아개발(주)</b><br>대표이사 : 김윤식<br>ykk777@transcorea.com<br>Tel. 02-489-4777<br>Fax. 02-489-4151   | <br><b>하나스</b><br>대표이사 : 한은화<br>le0326@naver.com<br>Tel. 02-543-1326<br>Fax. 031-421-1326                                  | <br><b>Urbansys</b><br>대표이사 : 최병섭<br>accounting@urbansys.co.kr<br>Tel. 02-387-2311<br>Fax. 02-353-8837      | <br><b>(주)한국도시계획</b><br>대표이사 : 김철민<br>sp21kcm@hanmail.net<br>Tel. 02-414-1117<br>Fax. 02-6007-163                                    |
| <br><b>한국메타이(주)</b><br>대표이사 : 김의영<br>rontai@korea.com<br>Tel. 02-812-2377<br>Fax. 02-816-2377                             | <br><b>한국씨씨알(주)</b><br>대표이사 : 변동원<br>ccr8311@naver.com<br>Tel. 031-781-8311<br>Fax. 031-708-8411        | <br><b>한국조경개발(주)</b><br>대표이사 : 민윤재<br>hankukia@chol.com<br>Tel. 032-321-9006<br>Fax. 032-321-0092                          | <br><b>(주)한국조경기술개발사무소</b><br>대표이사 : 전호중<br>sejungpark@empas.com<br>Tel. 02-541-4654<br>Fax. 02-2226-4654    | <br><b>(주)한국종합기술</b><br>대표이사 : 이강록<br>firewind@kecc.co.kr<br>Tel. 02-2049-5614<br>Fax. 02-2049-5097                                  |
| <br><b>LODEX</b><br>대표이사 : 맹홍호<br>lodex@hanmail.net<br>Tel. 02-2203-1566<br>Fax. 02-3431-5371                            | <br><b>한림에코텍(주)</b><br>대표이사 : 한성식<br>ccw815@chol.com<br>Tel. 02-3445-8921<br>Fax. 031-735-8080         | <br><b>(주)한림조경기술사무소</b><br>대표이사 : 김경윤<br>hanlim@hanlimla.co.kr<br>Tel. 02-564-3311<br>Fax. 02-564-3314                    | <br><b>한솔그린(주)</b><br>대표이사 : 한승호<br>hgreen@chol.com<br>Tel. 02-387-2311<br>Fax. 02-3411-0845               | <br><b>Hansol S&amp;D</b><br>대표이사 : 김영욱<br>kyw9382@dreamwiz.com<br>Tel. 031-596-6501<br>Fax. 031-596-6500                           |
| <br><b>한일개발(주)</b><br>대표이사 : 윤우열<br>hanilde@chol.com<br>Tel. 031-704-1700<br>Fax. 031-709-4908                          | <br><b>해오름2000(주)</b><br>대표이사 : 김문모<br>k7391225@hanmail.net<br>Tel. 031-286-9895<br>Fax. 031-286-9838 | <br><b>주식회사 해오름조경</b><br>대표이사 : 김충열<br>cj4009@naver.com<br>Tel. 041-564-3839<br>Fax. 041-551-9114                        | <br><b>해울엔지니어링(주)</b><br>대표이사 : 한정훈<br>rabbit2311@hanmail.net<br>Tel. 02-2027-6030~4<br>Fax. 02-2027-6035 | <br><b>HDC</b><br>현대산업개발<br><b>현대산업개발(주)</b><br>대표이사 : 김재식, 정몽규<br>jjryu@hyundai-dvp.com<br>Tel. 02-2008-9558<br>Fax. 02-2008-9004 |
| <br><b>형진조경(주)</b><br>대표이사 : 강이호<br>liniland@chol.com<br>Tel. 02-592-1545<br>Fax. 02-592-1662                           | <br><b>(주)형호엘엔씨</b><br>대표이사 : 김종호<br>howon5256@naver.com<br>Tel. 02-2057-5204<br>Fax. 02-571-5203     | <br><b>HONG DESIGN</b><br><b>홍디자인</b><br>대표이사 : 김형수<br>hong8152@naver.com<br>Tel. 041-577-0307<br>Fax. 041-577-9047      | <br><b>ela</b><br><b>(주)환경과조경</b><br>대표이사 : 박명권<br>klam@chol.com<br>Tel. 02-521-4026<br>Fax. 02-521-4627  | <br><b>L'Arte</b><br><b>(주)환경디자인아르테</b><br>대표이사 : 김정수<br>larte@chol.com<br>Tel. 02-569-7551<br>Fax. 02-569-7553                    |
| <br><b>Hudigm</b><br><b>(주)휴다임건축사무소</b><br>대표이사 : 김영찬, 김진규<br>wind@hudigm.com<br>Tel. 02-6717-6000<br>Fax. 02-6717-6419 | <br><b>한국토지주택공사</b><br>대표이사 : 이재영<br>sunny@lh.or.kr<br>Tel. 031-738-3297<br>Fax. 031-738-3356         | <br><b>SH공사</b><br>대표이사 : 변창흠<br>khaklee@sh.co.kr<br>Tel. 02-3410-7535<br>Fax. 02-3410-7584                              | <br><b>SK입업(주)</b><br>대표이사 : 이성윤<br>Tel. 02-3410-7535<br>Fax. 02-3700-2809                                |   |



제 489호

# “인조암 업계 최초 신기술인증제품”

2015년도 국제프레지던트컵 개최지  
송도잭니클라우스CC



ISO 9001, 14001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특 어  
제 10-0743816 제 10-1018566  
제 10-0943672 제 10-1035411  
제 10-0877977 제 10-1113926  
제 10-1540804



# Well fit

## DESIGNPARK 웰핏

웰핏 크로스핏이란?

# well + fit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바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헬스 트레이닝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일상생활의 동작을 응용하여 다양한 운동을 하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 트레이닝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모듈형 크로스핏 복합 운동 시설물입니다.



크로스핏 - TYPE1



크로스핏 - TYPE2



휴게운동 복합시설

## FITNESS의 새로운 바람

Well fit은 생활 체육 시설로서 신체의 건강을 증진 시킴과 동시에 커뮤니티로서 교류하는 삶의 소통 공간을 제공하여 마음의 건강 또한 함께 추구하는 신개념 건강 증진 공간입니다.

